차 례

읽기교재

1. 불후의 고전적명작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시)

총창을 비껴들고 산정에 오르니
멸적의 장수힘 온몸에 넘친다
미래를 꽃피울 피끓는 가슴에
달려갈 앞길이 파도쳐 밀려온다

천만대군 이끌고 험산준령 넘고넘어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가리
침략자 미제를 이 땅에서 내몰고
통일된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라

삼천리강산을 락원으로 꽃피워
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리
그 어떤 원쑤도 다치지 못하게
내 조국 영원히 지켜가리라



읽기교재

2. 아버지의 얼굴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로 쓸어들어왔다.

철메는 글짓기시간을 어느때나 즐겨 기다린다.

(오늘 제목은 무엇일가?)

가슴을 조이며 교탁쪽으로 눈길을 보내는데 선생님은 웃으며 말을 꺼냈다.

《오늘은 인물묘사를 하겠습니다. 인물묘사는 몇줄의 글로 얼굴을 그려냄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성격이 어떤가 하는것 등을 생생하게 보여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놓고 글을 지읍시다.》

교실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칠판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얼굴》

선이 실하고 모양이 서글서글한 여섯자의 제목이 아이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가벼운 속삭임소리가 파도처럼 교실에 퍼져갔다. 몇분 지나서는 벌써 종이우를 달리는 펜촉의 사그락소리들이 들려왔다.

철메는 귀바퀴를 덮은 단발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며 학습장에 써놓은 제목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마음에 드는 제목이였다. 글짓기제목을 받고 여직껏 가슴이 이렇게 뛰여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한번도 본적 없는 그 얼굴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보지 못한 얼굴인데 어떻게 쓸가?)

철메의 크고 검실검실한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실리였다.

교실을 돌아보던 선희선생이 교탁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종이장에 무엇인가를 적어넣기 시작했다. 선희선생은 그 종이장을 철메의 학습장우에 슬그머니 가져다놓았다.

《철메학생, 왜 아직도 글을 쓰지 않나요? 철메의 아버지는 조국통일을 위해 목숨 바친 훌륭한분이지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짓밟힌 남녘땅을 생각하실 때마다 철메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본다고 말씀하셨다지요.

얼마나 빛나는 얼굴이예요. 자랑을 가지고 어서 쓰세요. 훌륭한 글이 될거예요!》



철메는 펜대를 꼬느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뜨거운 생각이 밀물처럼 파도쳐왔다. 그것은 대동강반에 실버들이 푸르르고 살구꽃이 곱게 피던 여러해전 4월의 어느날 저녁이였다.

철메는 자기 집 마당에서 아빠트짓기놀음을 하고있었다. 그는 놀이감자동차로 깨진 벽돌이며 기와를 날라왔다. 놀음에 어찌나 취하였던지 철메는 울타리밖에 승용차가 와 선것도 모르고있었다.

《철메야!》 하는 우렁우렁한 목소리와 함께 크고 뜨거운 손이 머리에 얹혀질 때에야 철메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자기의 등뒤에 서계신것을 보았다.

아버지원수님의 뒤에는 어머니가 서있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철메를 닁큼 안아드시였다.

《철메를 보니 하진선생의 얼굴을 보는것 같습니다. 정말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철메는 너무나 좋아서 손벽을 짝짝 쳤다.

《아버지원수님, 야 참 좋아요.》

《좋다? 허허 다 자랐군. 하진선생의 최후를 듣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의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애가 벌써 이렇게 컸단 말이지？…》

해방된 그해 가을 철메의 아버지는 먼 남녘땅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뭇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그러다가 어버이장군님의 품이 그리워 가시덤불을 헤치며 평양으로 찾아왔었다.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다시금 남녘땅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을 서슴없이 바쳤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길이 머무르시는 먼 남녘하늘밑에 철메의 아버지가 최후를 마친 언덕이 있을것이였다.

그날부터 어린 철메는 동네의 소꿉동무들앞에서 버릇처럼 자랑하군 하였다.

《원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아신단다.》

(그날 난 아버지원수님의 중절모띠에 살구꽃을 꽃댕기처럼 꽂아드렸댔지. 왜 그렇게 철없는짓을 했던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고계시는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줄기차게 싸워온 아버지의 자욱자욱이 눈앞에 선히 밟혀왔다.

철메는 불현듯 펜촉에 잉크를 묻히고싶은 불같은 마음을 누르며 고마움에 찬 눈길로 선희선생을 바라보았다. 그처럼 찾으려던 글의 실마리가 풀린것이다. 선희선생은 격려하듯이 고개를 끄덕여보이였다.

창유리로 비쳐드는 저녁노을빛에 학습장은 자그마한 기폭처럼 붉게 물들었다. 철메는 그 학습장에 펜대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 철메는 자기가 지은 글을 읽으며 선희선생이 눈물을 흘린것도 그리고 자기의 글을 출판사에 보내려고 결심한것도 알지 못하였다.

풍요한 9월이 무르익어가는 정원이였다.

새들은 가을을 노래하며 숲에서 끊임없이 방울을 굴리고있었다. 꽃밭에서는 나비들이 춤추고 꿀벌들이 붕붕거리였다.

우거진 숲에 둘러싸인 건물이 나무아지들사이로 내다보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댁이였다.

둥근 탁자가 놓인 정원의 버드나무밑에서 철메는 어머니와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철메의 작은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세차게 높뛰였다.

《소년신문》에 실린 철메의 글을 제일 선참으로 보아주시고 해방후 아버지를 만나주셨던 사적관으로 데리고 가시여 친히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은 이처럼 어머니와 함께 또다시 불러주실줄은 몰랐다.

《철메가 왔느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에 철메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달음쳐갔다.

철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숙영동무, 오래간만입니다.》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내가 오늘 오라구 한건 철메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

철메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수 없어 눈만 슴뻑거리였다.

《… 철메가 쓴 글을 읽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그 구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을 그치시고 철메가 쓴 글의 구절들을 되새겨보시는듯 조용히 탁자를 다독이시였다.

철메의 가슴은 쿵쿵 뛰였다. 서투르게 씌여진 자기 글의 한줄한줄이 새삼스럽게 머리속을 언듯언듯 스쳐지나갔다.

잊을수 없는 그 글짓기시간에 철메가 쓴 글은 과연 어떤것이였던가.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원쑤놈들에게 학살되였다고 합니다.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운 〈죄〉로 말이예요.

〈아이가 태여나면 그 애를 장군님의 전사로 키워주오. 그리고 그 애의 이름을 철메라고 불러주오. 병들고 썩은 이 사회를 산산이 짓부셔버릴 쇠주먹으로 그 애를 키워주오!〉

이것은 옥중에 있던 아버지가 철창속의 제자들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부탁이였습니다.

사형장에 나간 아버지는 마지막순간 조국의 흙을 두손에 움켜쥐고 볼에 막 비비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웃으면서 떳떳이 북녘하늘을 바라본 아버지의 그 얼굴을 언제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고계시는 얼굴이기때문입니다!…》

바람이 숲을 흔들었다. 가볍게 설레이는 나무잎새들은 철메가 짧은 글속에 다 담지 못한 깊은 사연을 소곤소곤 속삭여주는것 같았다.

《철메야, 아버지의 얼굴이 보고싶었지?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목숨으로 지켜낸 아버지의 얼굴을 나는 너에게 찾아주고싶었다.》

어머니의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 숙영동무, 하진선생의 사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관아저씨가 드리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시였다.

《수령님, 어쩌면…》

사진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손이 가볍게 떨리였다.

어머니곁에 바투 다가선 철메의 가슴은 다시금 쿵쿵 높뛰였다. 난생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철메의 눈길은 오래 머물러있었다.

얼마나 보고싶던 아버지의 얼굴인가! 씨원스럽게 트인 이마밑에서 안경속의 서글서글한 눈이 곧바로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광채가 도는 눈동자우에서는 금시라도 진한 눈섭이 움직일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철메예요. 자애로운 원수님께서 저를 한품에 안아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철메는 아버지의 얼굴에 볼을 비비며 이렇게 소리치고싶었다. 그

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아버지의 사진을 끌어당기였다.

《이제는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구나! …》

울음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꿈결에서처럼 어슴푸레 들려왔다.

그러나 철메도 어머니도 그 사진을 찾기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십명의 남반부출신일군들도 만나보시고 중앙도서관에 지시하시여 전쟁전 남조선출판물도 몽땅 훑어보게 하시였으며 그러시다가 먼 량강도에 있는 한 남반부출신일군한테서 하진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찍은 대학졸업사진을 찾으시여 따로 크게 만들도록 하시였다는것까지야 어찌 알수 있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메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의 어깨를 뜨겁게 어루만지시였다.

《너를 보니 오늘은 너의 아버지생각이 더 난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때 아버지에게 그 몹쓸놈의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평양에 와서 함께 살면 어떤가고 물은적이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사는 남녘땅에서 생을 받고 태여난 어린것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돌멩이처럼 천대받는데 어떻게 저만 편안히 살겠다고 그 땅을 떠나겠습니까? 그 애들이 북반부의 아이들처럼 장군님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살아도 그 땅에서 살고 죽어도 그 땅에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지금도 그 말을 잊을수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을 그치시고 생각에 잠기시여 푸른 련봉들과 하늘이 맞닿아있는 아득한 북녘으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참으로 많은 투사들이 지난날 백두밀림과 교수대와 철창속에서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우다 쓰러졌습니다. 그들가운데는 후대들에게 자기의 얼굴조차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내여 선렬들의 념원이 꽃핀 이 땅에서 새 세대들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가슴을 뒤잡아흔드는 크나큰 충격을 안고 철메는 말없이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보았다.

유난히도 아름다운 9월의 저녁, 조용히 설레이는 나무잎들도 그 어떤 즐거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춤추는것 같은 이 저녁에 철메는 아버지원수님의 바래우심을 받으며 정원을 나섰다.

《이제는 네가 혁명가가 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 네가 태여나고 아버지가 싸우던 그 남녘땅이 아직도 놈들에게 짓밟히고있지 않느냐. 네가 혁명의 쇠주먹이 되여 조국통일을 위해 훌륭히 일할 때 너의 아버지의 얼굴이 인민앞에 더 빛난다는것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원수님께서 자꾸 어깨를 쓸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철메는 목이 꽉 메여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아버지원수님, 혁명을 위해서 철메가 필요할 때 어디라도 불러주십시오. 저는 서슴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철메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씻고 저녁의 하늘가에 우렷이 드러나는 아버지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커다란 기폭처럼 머리우에 펼쳐진 노을은 스며드는 저녁어스름속에서 점점 더 붉게 타올랐다. 철메는 노을속을 걸어가고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김 정)

〔속 담〕

○ 글 잘 쓰는 사람은 필묵을 가리지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에서 조건이 좋고나쁨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

○ 고생끝에 락이 온다.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끝까지 해내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말.

읽기교재

3. 대대장련락병

대대장련락병 만철이에게는 이름도 많다.

련락병, 나팔수, 대대장대리인…

화선냄새가 풍기는 얼마나 멋진 이름들인가！

이밖에도 꼬마, 무자격군인, 엉터리빨찌산…

만철이는 꼬마라고 부를 때면 성을 내였고 무자격군인이란 말은 두번다시 들을가봐 겁이 났다.

그는 남들보다 장구류들도 많았다. 무지개탄창이 달린 기관단총, 신호나팔, 군용전지…

하기야 이런것들을 내놓고 대대장련락병으로서의 만철이를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물론 전선의 련락병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것들이지만 그 많은 장구류들은 이 만철이에게 있어서 깊은 사연을 남긴 더없이 소중한것들이였다.

주둥이가 소라같이 생기고 모양이 깜찍한 신호나팔만 보아도 그렇다.

그때가 바로 우리 인민군대가 전략적후퇴를 하던 1950년 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여름옷차림에 중학생모자를 쓰고 엄청나게 큰 군화를 신은 애된 소년이 대대장을 찾아왔다.

《에이 참, 집에서 엄마젖이나 빨것이지 왜 성가스레 쌈판에 나타났느냐.》

나이지숙한 상사(그는 만철이 이전의 신호나팔수였다.)가 솜저고리를 입혀주면서 혀를 찼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돌아가셨니？》

《예, 미국놈들의 폭격에…》

《그럼 아버지는？》

만철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군대에선 묻는 말에 얼른얼른 대답을 해야 돼.》

《아버지는 미국놈들이 죽였어요. 목매달았어요…》

만철이의 입술은 실룩거렸으나 눈물은 참아냈다.

《그래? 참 딱하구나. 이제 전선을 넘어서면 학원에 가게 될게다.》

상사는 만철이를 안심시키려 했다.

《제가 뭐 어린앤가요. 친한 동무들과 빨찌산을 하려 했는데요.》

만철이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빨찌산? 그래 왜 못했느냐?》

《한 아이가 붙들렸어요.》

《그담 애들은?》

《그담은 나뿐인데 혼자서야 뭘해요.》

《핫…》

상사는 대대장이 사색중이라는것도 잊고 웃어댔다.

대대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도속의 후퇴길이 만철이네를 생각할수 없게 한 모양이였다.

《출발준비!》

대대장의 구령에 상사가 배낭에 매달았던 나팔을 입에 댔다.

만철이는 저도모르게 배를 그러쥐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라면 어떤 나팔이라도 그렇게는 불것 같지 않았다.

《나팔 한번 불어보게 해주세요.》

그제야 대대장은 만철이를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어서 불어보렴!》

푸실푸실 눈이 내리는 으슥한 산골짜기로 되알진 나팔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곡조까지 인민군대에서 통용되는 행군출발신호 그대로였다.

《어디서 배웠니?》

대대장의 만족한 물음이였다.

《소년단나팔수였어요!》

《좋다! 이제부턴 네가 그걸 맡아라! 그리구 내곁에서 한발작

도 떨어지지 말아라！》

신호나팔！ 그것은 만철이로 하여금 선서없이 군인이 되고 련락병이 될수 있게 해준 고마운 장구류이다.

대대장련락병！ 이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호랑이로 소문난 중대장들도 만철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차렷자세로 맞아주고 오락회때면 대대장의 제1대리인이라며 어깨를 당긴다. 행군할 때에도 대렬속이 아니라 언제나 대대장의 옆에 착 붙어서 가군 한다.

그렇지만 만철이는 하마트면 련락병은커녕 대대에서 쫓겨날번 한 일이 두번씩이나 있었다. 말하자면 무자격군인의 값을 치르어야만 했던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철이의 전지와 무지개탄창에 깃든 사연이다.

무지개탄창은 3중대장 련락병 최순길의것이였다.

자기의 따바리탄창에 비하면 무지개탄창은 훨씬 좋아보였다. 몸에 착 달라붙는 맛이 있고 《앞에 총！》 할 때에는 왼손으로 지그시 잡는 멋이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억지로 바꾸었는데 그때 대대장은 《아무래도 군대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진작 애육원에나 보냈을걸 내가 잘못했지.》라고 했었다.

겁이 더럭 난 만철이는 이튿날 순길이를 찾아갔다. 그러나 순길이는 쏘구역에서 전사하고 따바리탄창은 벌집처럼 구멍이 나있었다. 만철이는 소리내여 울었다. 애육원으로 쫓겨갈가봐서가 아니라 순길이의 최후가 분했다. 그날 만철이는 품속에서 《복수기록장》을 꺼내여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이름 다음에 순길이의 이름도 써넣었다.

(순길아, 내 원쑤를 갚으마. 규률도 어기지 않을테야…)

명심한다는것이 이번엔 덜컥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새 작전을 앞두고 대대에서 오락회가 한창일 때였다. 만철이는 물론 거기에 가고싶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 바쁜 시간을 보내는 대대장의 곁에서 떠나서는 안되였다. 하지만 귀에는 메아리치는 박수소리와 함성이 자꾸만 들려왔다. 대대장은 20분의 시간을 주었다.

만철이는 한가운데서 쩔쩔매는 특무장을 살려주었다.

떠나갈듯 한 박수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재청！》소리…

《야！ 그것 참 홀딱 먹었으면 좋겠당이！》

《작아도 고추알이야！》

《쉿！ 조용！ 대대장동지의 대리인이야！》

《체, 무자격군인？》

《하하하…》

만철이는 재청으로 이번엔 행금통 켜는 흉내를 냈다.

빵금빵금 행금통
다 떨어진 깡통
자꾸나 아픈 골치통
대문밖의 청결통
리승만의 대갈통！

《와—》

전사들은 배를 그러안고 대굴대굴 굴었다. 시간은 빨리도 흘렀다. 만철이가 지휘부에 돌아왔을 때는 대대장이 혼자서 련대로 떠난 뒤였다.

《상관의 명령은 조국의 명령이야. 그러니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건 조국을 반역하는거나 다름이 없어！》

성이 난 대대참모는 당장 쫓아낼것처럼 을러멨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대대장도 그렇게 말했다는것이였다.

만철이는 혼자 쿨쩍쿨쩍 울었다. 밤이 깊도록… 자기자신도 왜 우는지 딱히 모르면서… 그저 공연히 눈물이 나오며 서러웠다.

《왜？ 아직도 안 자？》

대대장은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대대장동지, 저를 용서하십시오. 다신 안… 그래두 쫓아낸다면 전… 전… **김일성**장군님께 편지를 쓰겠어요！》

대대장은 놀란듯 한 시선으로 한참이나 만철이를 바라보더니 외투를 벗었다.

《넌 그런 편지로 최고사령관동지의 바쁘신 사업을 방해할 작정이냐？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선 안돼. 전사는 말이야… 남자 열여섯이면 대장분데 자, 이거나 가져！》

그것은 전지였다. 만철이가 그렇게도 갖고싶어하던 군용전지였다.

련대장련락병이 가지고있는것과 꼭 같은…

그렇다고 만철이가 무자격군인의 위험계선에서 완전히 벗어난것은 아니다.

대대의 방어선엔 쉴새없이 적의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대대감시소천장에서는 흙이 부슬부슬 떨어졌고 금시 부러질듯 동발에서는 부직부직 소리가 났다.

이 시각 대대장은 그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렸다. 3중대와의 통신이 보장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있었다. 겨우 복구해놓으면 1분도 못되여 끊어져버렸다.

코숭이바위까지는 불과 300m, 나무 한그루, 큰 바위 하나 없는 밋밋한 등성이뿐이다. 대대는 교통호도 파지 못한채 적과 맞붙었다.

련이어 전화수들이 달려나갔으나 《불새》에게서는 응답이 없다. 마지막으로 상급전화수가 달려나갔다.

《불새》를 찾는 대대장의 목소리는 아예 쉬여버린듯싶다.

대대장의 얼굴은 컴컴해졌다.

만철이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명령을 주지 않는다. 왜 《만철이 앞으로!》 하고 말해주지 않는가. 자기를 못 믿는것이 아닌가?

《대대장동지!》

《왜?》

《저를 보내주십시오!》

만철이는 끝내 말하고야말았다.

대대장은 만철이와 전방을 번갈아보고나서 어린 련락병의 위장포를 바로잡아주었다.

《만철이는 몇학년에서 전쟁을 맞이했더라…》

《예?》

《몇학년 때 전쟁이 일어났나 말이야!》

《2학년에서 3학년으루 올라가자던참이였습니다.》

《그래… 3학년으루 말이지. 그다음은 고급중학교가 있지. 그리구 대학두 있구…》

만철이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공부야 전쟁을 이기구 하죠.》

대대장은 만철이를 끌어안았다.

《좋다! 가거라. 그러나 넌 갈뿐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넌 나의 련락병이니까! 알겠지?!》

《알았습니다!》

《중대장에게 전해라. 4시까지 견지할것. 한개 소대의 지원이 있음. 이상!》

《알았습니다!》

만철이는 달렸다. 불소나기가 그를 휩쌌다. 그러나 만철이도 하나의 불줄기였다. 총탄이였고 포탄이였다.

전호… 포탄… 등성이… 쓰러진 상급전화수! …

만철이는 가슴아픈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손을 잡아보았다. 돌덩이같았다. 그러나 금시 자리를 털고 일어날것만 같았다. 《불새!》 하고 소리칠것 같았다.

만철이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죽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네놈들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지, 나는 네놈들을 이기고야말겠다. 네놈들이야말로 죽어 마땅하다!)

만철이는 손이 긁히우고 무릎이 감각을 잃도록 기고 또 기였다.

쉬익— 쾅… 폭풍… 따발총소리…

드디여 만철이는 중대장앞에 섰다.

이제는 되돌아가야 한다.

만철이는 중대장의 어깨에 검붉은 피가 얼어붙은것을 보았다. 눈은 푹 꺼져들어가고 입술은 터지고… 열손가락이 다 수류탄고리를 뽑느라고 살껍질이 벗겨졌다. 차마 갈수가 없다.

《뭘해? 돌아가지 않구!》

《타다닥!》 전호의 벽을 총알이 파고든다. 어느새 중대장의 큰 손이 만철이의 뒤덜미를 잡아 전호속에 구겨박았다.

아, 《불새》는 지금 불속에서 타고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가야 한다!

만철이는 자기의 예비탄창 두개와 수류탄 두개중에서 한개만 남

기고 나머지는 중대장곁에 떼놓았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돌처럼 굳어진 언 건빵을 꺼내놓았다.

중대장의 꺼끌꺼끌한 뺨이 만철의 뺨을 아프도록 찌른다.

《이 귀염둥이야! 내게두 너만 한 동생이 있다…》

만철이는 다시금 전호속을 달렸다.

낯익은 등성이… 땅속을 들볶는 포탄 터지는 소리…

만철이는 《앗!》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주먹만 한 돌덩이가 머리를 때렸기때문이다. 몸도 절반나마 흙속에 묻히였다.

만철이는 잠을 자는것 같았다. …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만철이는 정신을 차렸다.

아, 대대장동지는… 공격시간… 신호나팔! …

만철이는 흙을 털고 일어났다. 머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만철이는 걷기 시작했다. 기고 또 기였다.

대대장감시소 가까이 이르자 푸른 신호탄이 오른다. 반공격시간이 된것이다. 신호나팔을 불어야 할 때이다.

만철이는 안깐힘을 써가며 나팔을 불고 또 불었다.



만철이는 고지경사면을 달려올라가는 자기 대대장을 보았다. 대대장은 왼손에 권총을 빼들고 오른손으로는 따발총을 휘두르면서 나타나는 원쑤놈들을 냅다 갈기는것이였다.

만철이는 대대장이 《만철이, 빨리! 빨리!》 하고 웨치는것만 같았다. 만철이는 오직 대대장곁으로 가야 한다는 한 생각으로 뛰고 또 뛰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알수 없었다.

대대장과의 거리가 열걸음안팎으로 줄어들었을 때였다. 만철의 눈앞을 가로질러 낯선 총신이 쑥 나왔다. 그것은 한절반 무너진 화점속에서 내민 미국제총신이였다. 총구는 곧바로 대대장을 겨누고있었다.

《앗!》

만철이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 총신을 와락 잡아당기였다. 그러자 화점에서 총을 잡은채 키가 구척같은 미국놈이 고꾸라지며 따라나왔다. 만철은 질겁한 그놈의 상판과 그놈의 뒤에서 우글대는 다른 미국놈들을 보았다.

만철은 총신을 홱 옆으로 잡아채는것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수류탄을 날렸다. 요란한 폭음이 울린 뒤에도 만철의 따발총 무지개탄창에서는 총알들이 악악 소리를 지르며 날아나오고 또 날아나왔다.

전투가 끝난 뒤 만철이는 포연에 끄슬고 뚜껑의 네귀가 모지라진 자기의 《복수기록장》을 펼치였다.

그의 계산은 1대 1이 아니였다.

아직도 어머니의 몫, 동생의 몫, 순길이의 몫은 그대로 남아있다. 달리고 달려야 할 길은 멀다. 그 길을 주름잡아나갈 때 부대의 군기앞에서 엄숙한 군인선서도 하게 될것이다. 만철이는 그날의 자신을 그려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벌써 몇백번 외워본 그 준엄한 말마디들이 또박또박 울려나왔다.

(김 철)

△ 문학작품의 종자

문학작품의 종자란 한마디로 말하여 작품의 핵,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말한다.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되는 종자는 마치 식물에 비기면 씨앗과 같은것이다. 씨앗이 심어져야 식물의 줄기가 생기고 잎이 달리고 꽃

이 피여 열매를 맺듯이 글에도 종자, 씨앗이 심어져야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야기거리도 얻어지며 거기에 맞게 줄거리가 엮어져 작품에서 말하려는 기본문제와 사상을 보여주게 된다.

소설 《대대장련락병》의 종자는 원쑤에 대한 복수심에는 끝이 없다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이 종자로부터 복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원쑤에 대한 복수는 천백배로 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작품의 종자에 대한 문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세상에서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말하기교재

4. 목숨보다 귀중한것

나는 지금 그림 《조국을 위하여》를 보고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림입니다.

파편에 중둥이 부러진 나무들, 딩구는 미국놈 탄약상자와 해골이 그려져있는 철갑모, 험상스럽게 파헤쳐진 땅…



얼마나 가렬한 전투입니까. 고지는 불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땅에서는 검붉은 포연이 타래쳐오르고 화점에서는 시뻘건 불줄기가 내뿜습니다.

그앞에 땅을 박차면서 불뿜는 화구를 향해 벌떡 일어선 리수복영웅!

파편에 찢기운 군복자락과 으스러지게 틀어쥔 따발총의 띠는 기발처럼 세차게 나붓깁니다. 긴장된 구리빛얼굴과 노려보는 눈에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가 이글이글 타번지고있습니다. 꽉 다문 입, 억센 팔뚝은 원쑤의 화구를 기어이 틀어막고야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말해주는듯 합니다.

불뿜는 적화구까지는 겨우 여라문발자국! 이 순간 영웅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해방의 감격, 땅을 분여받던 날 평양하늘을 우러러 큰 절을 올리던 어머니의 모습, 행복하던 학창시절…

그 모든것이 하나로 얽혀져있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그리고 고지아래에서 돌격을 준비하고있는 전우들을 생각했을것입니다.

나의 머리에는 리수복영웅이 남긴 시의 구절구절이 떠오릅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서슴없이 바칠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영웅은 지금 첫발을 억세게 내디딥니다. 영웅이 걸어갈 길은 불과 여라문발자국, 그러나 그것은 평생을 걸어도 못다 걸을 애국의 길, 위훈의 길이였습니다. 비록 짧아도 그것은 가장 값높은 위훈으로 빛나는 영생의 길이였습니다.

그러기에 리수복영웅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열여덟살의 청춘으로 살아있는것입니다.

나는 이 한폭의 그림을 보면서 리수복영웅이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 얼마나 충실했으며 조국과 인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그토록 숭고한 자기희생성과 영웅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는것을 심장깊이 체험하게 되였습니다.

영웅이 목숨으로 지켜낸 이 땅우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영웅이 념원했던 사회주의조국이 거연히 일떠섰습니다.

리수복영웅은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났으나 그의 넋은 오늘도 우리들을 끝없는 충정과 빛나는 위훈에로 힘있게 부르고있습니다.

나는 영웅의 그 충실성을 본받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오늘의 리수복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속 담〕

○ 진정한 벗은 어려운 때 안다.
참다운 우정은 어려운 때 진실하게 나타난다는 말.

○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인민의 억울하고 쓰라린 처지를 이르는 말.

5. 사랑의 등산길을 따라

명승의 산 묘향산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우리는 만폭동에로의 등산길에 올랐다.

산뜻한 등산복차림에 배낭을 지고 분단기발을 휘날리며 씩씩하게 걷는 우리들의 마음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걸으신 로정을 따라 행군한다는 자랑과 긍지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향산천의 정다운 여울물소리와 산새들의 즐거운 지저귐소리도 우리를 축하해주는듯싶었다.

거울같이 맑은 물속에선 산천어가 꼬리치며 오르내렸다.

목란꽃이 활짝 핀 길을 따라 국제친선전람관과 묘향산박물관앞을 지난 우리는 약수터에서 시원한 약수를 마시며 땀을 들였다.

얼마후 우리 등산대는 만폭동입구에 들어섰다. 골안에선 《쏴—쏴》 폭포소리가 산발을 울리였다.

만가지 폭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폭포였다.

폭포의 장쾌한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우리는 발걸음을 다그쳐 그 모습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릉폭포에 이르렀다.

넙적한 돌우에 구슬같은 흰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져내리며 분수처럼 물보라를 날리고있었다.

대오속에서 《야!》, 《야!》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갈수록 산세는 험하고 가파로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보호줄을 잡고 층층바위계단을 밟으며 아찔한 벼랑도 단숨에 올랐다.

이 등산로정을 일일이 밟아보시며 사랑의 보호줄도 늘여주고 발홈도 파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며 온몸에선 힘이 부쩍부쩍 솟구쳐올랐다.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부르는 《등산대의 노래》가 골짜기를 쩌

령쩌렁 울렸다.

골안은 점점 깊어지며 묘한 벼랑들과 신기한 폭포들이 련속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은선폭포, 유선폭포를 지나 큰 바위밑을 빠져나가니 그 옛날 선녀들이 내려와 미역을 감고 올랐다는 비선폭포가 세찬 물보라를 일으키며 깎아지른듯 한 벼랑에서 쏟아져내렸다.

《야! 무지개다!》 누군가 웨치자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폭포중턱으로는 물안개가 하얗게 떠돌고 칠색무지개가 아름답게 비껴있었다.

황홀경에로 이끌어가는 폭포앞에 섰노라니 이 훌륭한 폭포를 못 보고는 만폭동을 보았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셨다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이 생생히 떠올랐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셨던 그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듯 비선폭포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한껏 뽐내며 콸콸 골안을

뒤흔들었다.

시원한 물보라를 맞으며 땀을 들인 우리는 또다시 가파로운 벼랑을 톺아올라 9층폭포에 이르렀다.

푸른 산이 두 날개를 펼친 사이로 큰 물줄기가 9개의 계단을 꺾어 파도치며 흘러내리고있었다. 폭포는 참으로 시원스럽고 우람찼다.

얼마후 《따따따》 하는 휴식나팔신호가 울렸다.

우리는 폭포곁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야영소의 푸짐한 식탁을 마주하는것도 좋았지만 폭포소리를 들으며 바위들을 식탁삼아 먹는 재미는 참으로 유별난것이였다.

식사후 우리는 오락회를 가졌다.

나는 영순동무와 《우리 아버지》를 불러 재청을 받았다.

여러가지 자연현상들을 보고 동서남북 알아내기도 재미있었고 보물찾기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우리는 산봉우리에 올라섰다.

《야, 국제친선전람관이다!》

《우리 야영소도 보인다!》

동무들은 기뻐 어쩔줄 몰랐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높이 나는듯 한 기분이였다.

정말 여기서는 은혜로운 사랑속에 인민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꽃펴난 향산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한눈에 안겨왔다.

기묘한 바위들과 온 골안에 차넘치는 그윽한 꽃향기, 아름다운 산발들과 골안을 울리는 폭포소리…

정녕 묘향산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속에 변모된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한껏 자랑하며 웅장하게 솟아있었다.

즐거운 등산을 마치고 산을 내리는 우리들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웠다.

묘향산의 등산길, 이 사랑의 길을 따라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리라.

△ 글쓰기와 다듬기

글쓰기란 머리속에 구상한 내용을 글로 옮겨놓는 작업을 말한다.

글쓰기에서 지켜야 할 점은 첫째로, 글의 알맹이인 종자와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야기를 곧바로 펴나가는것이다. 둘째로, 글을 끝맺을 때까지 열정을 식히지 말고 근기있게 쓰는것이다. 셋째로, 잡생각을 버리고 글쓰기에 집중하는것이다. 넷째로, 남의 글을 본따지 말고 언제나 새롭게 쓰는것이다.

글다듬기란 써놓은 글의 결함을 고치고 부족점을 보충하여 훌륭한 글이 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글의 내용다듬기에서는 이야기하려는 문제가 명백하고 보여주려는 사상이 뚜렷한가, 제목과 내용이 맞는가, 꾸미거나 과장한것은 없는가, 불필요한것은 없는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글의 형식다듬기에서는 글의 짜임이 내용에 맞게 되였는가, 말마디와 문장이 틀리지 않았는가, 빠진 글자는 없는가, 띄여쓰기, 맞춤법, 문장부호들이 제대로 되였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읽기교재

6. 용서하시라

—돌격을 앞두고—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용서하시라 선생님이시여
화학숙제도 제대로 안해오고
대수공식도 외우지 않아
선생님을 애먹이던 이 제자를
선생님이시여 용서하시라

그러나 용서치 마시라 조국이여
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하여 나의 가슴을 겨눈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치 마시라

허나 나는 그대의 아들
내 혈전장에서 용맹하려니
잊지 마시라
내 최후의 돌격전에서
기발 들고 나가다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여
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
그리고 용서하시라

(김 철)

읽기교재

7. 전화종소리

거리에도 지붕에도 햇솜같은 흰눈이 소복이 깔렸다.

아이들은 어느새 눈에 파묻혔다. 눈사람, 눈싸움…

하지만 이 모든것이 찬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오늘 영화관람이 끝난 뒤였다.

방학간 중간총화모임에서 학급장은 나흘동안이나 방학숙제를 하지 못한 찬호를 다몰아세웠다. 공부는 하지 않고 스케트에만 정신을 팔다가는 절름발이가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 《래일》을 또 거들었다. 그래서 동무들의 웃음거리가 되였다.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 선생님들의 말밥에 오르던 나머지 찬호에게는 《래일》이라는 별명이 붙어다니였던것이다.

스케트타기에서 1등이요, 학급의 노래책임자인 찬호의 위신은 그 숙제때문에 날이 갈수록 납작해지는것이였다.

(뭐, 절름발이라구? 별명까지 거들면서…)

찬호는 두볼에 밤알을 문채 눈을 한웅큼 꽁꽁 다져 눈꽃핀 가로수에 힘껏 던졌다. 한번 또 한번…

문득 등뒤에서 《찬호동무!》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렸다. 한학급에서 공부하면서 분단위원장으로 사업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시는것이였다.

총화모임에서 어깨가 축 처진 찬호가 걱정스러우시여 댁으로 가는 길을 에돌아 함께 가시려는것이였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걷기만 하였다. 발밑에서는 뽀드득뽀드득 눈밟히는 소리만이 침묵을 대신해주고있었다.

《너 아직 학급장의 비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러니?》

찬호는 이 말을 기다리고있었던듯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 앤 너무해. 스케트경기에서 우리 분단이 이기는게 나쁜가 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발길을 멈추시였다. 그러나 이어 찬호의 푸념이 리해되시는듯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걸음을 떼시였다.

《찬호야, 내 재미나는 옛말을 하나 해줄가?》

《옛말?》

찬호의 눈은 대번에 빛났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옛말이라면 백날이고 천날이고 계속 들어도 싫지 않은 찬호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어깨우에 흰 눈송이들이 춤추듯 나풀나풀 내려앉는다. 대원수님께서는 흰 눈송이들과 속삭이시듯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덕만이라는 아이와 쇠돌이라는 아이가 매우 다정하게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대.》

이렇게 서두를 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나게 하셨던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도 귀를 기울이는듯 내리지 못하고 머리우에서 맴돌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공부하기 싫어하던 쇠돌이가 만든 종이 울리지 않고 깨여지는 바람에 성이 위험에 처했던 내용이였다.

《찬호야, 쇠돌이가 만든 종이 왜 깨졌겠니? 종을 만드는 리치를 몰랐기때문이야. 그래서 쇠돌이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니 우리두 공부가 첫째라는걸 잊지 말자.》

찬호의 머리는 저절로 숙어졌다. 처음에는 재미에 끌려들었는데 듣고보니 참으로 뜻이 깊은 이야기가 아닌가.

어느덧 용접불꽃이 꽃보라처럼 줄줄이 흘러내리는 건설장앞을 지나게 되였다.

《찬호야, 저것 봐. 벌써 3층이로구나. 미국놈들은 우리 나라가 백년이 걸려두 일떠설수 없다고 했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우리 인민은 저렇게 일떠서구있지 않니. 나는 저렇게 우뚝우뚝 집들이 일떠설 때마다 우리두 아버지들처럼 힘을 더 내여 공부랑 좋은 일이랑 더 많이 해야겠다구 생각하군 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찬호의 머리는 더 깊숙이 수그러졌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책으로 하여 얼굴에 그늘을 지은 찬호가 측은하게 여겨지시였다.

《찬호야,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자꾸나. 난 네 노래소리가 언제나 좋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명랑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 선창을 떼시였다.

터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
…

《복구건설의 노래》였다. 찬호도 처음에는 낮게 따라불렀다. 그러나 인차 대원수님께서 하시는것처럼 오른손을 아래우로 저어 흔들면서 힘있게 불렀다.

노래속에 갈림길이 나졌다. 찬호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멈추

어서신것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며 그냥 나가다가 얼마쯤 해서야 뒤를 돌아보았다.

《하하하, 확실히 너는 노래책임자자격이 있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멀리에까지 메아리쳐갔다.

찬호는 쑥스러웠던지 어줍게 웃으며 뒤머리를 긁적거렸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찬호의 기분이 명랑해진것이 기쁘시였다. 헤여지기 앞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끼손가락을 편 오른손을 찬호앞에 내미시였다.

《찬호, 한가지 약속하자. 오늘 밤 숙제를 다하구 나한테 전화를 걸어줄수 있니? 늦어두 기다릴테니, 응?》

전혀 뜻밖이였지만 대원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싶지 않았다.

《좋아, 할수 있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손을 잡는 찬호의 눈굽은 뜨거워났다.

찬호는 숫눈길에 발자국을 남기시며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바래드렸다.

내리던 눈은 멎고 하늘에선 쟁반같은 보름달이 대원수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었다.

똑딱, 똑딱…

시계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찬호는 탁상시계에 눈길을 주었다. 시계에 장식된 부엉이가 똑딱소리에 맞추어 큰 눈을 데룩데룩 떴다 감는다.

여느때 같으면 부엉이눈에 맞추어 《부엉—부엉—》 하고 웃기도 했을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를 지릅떠보는 부엉이눈길이 아예 다르게 느껴진다. 틀림없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봤지— 찬호야, 난 조금 있으면 새날로 간다. 숙제를 빨리 해. 약속을 지켜야지.》

찬호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박자소리가 이처럼 고르롭고 규칙적인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부엉아, 좀 천천히 가렴.)

찬호는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애원하고싶었으나 꾹 참았다. 국

어숙제를 마치고 수학숙제에 달라붙었는데 네번째 문제에 가서 딱 걸리고말았다. 그러니 아직 두 문제가 남아있는셈이였다.

찬호의 심정을 아는듯 모르는듯 《부엉이》는 자꾸만 가고있다. 벌써 열한시를 넘어섰다. 찬호와 《부엉이》사이에 졸음이라는 놈이 끼여든다. 눈섭에는 납덩이가 달린듯 했고 어깨마저 쑤셔나기 시작한다.

(아하, 졸음이라는 놈이 나를 어째보자구?)

찬호는 밖으로 나가 씽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눈을 주먹만 하게 꽁꽁 다져 이마우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머리속이 쩡— 울리면서 대번에 정신이 들었다.

다시금 책상을 마주하고앉으니 졸음은 달아났지만 수학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엥히!》

찬호는 제풀에 성을 내며 련습지를 박박 찢어 책상아래로 내동댕이치고는 자리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정다운 모습이 안겨든다.

(다른 문제라도 풀어야겠다.)

찬호가 다시 일어나려는데 《따르릉… 따르릉…》 하는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아버지가?)

출장가신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깊은 밤중에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것이다.

찬호는 닁큼 수화기를 들었다.

《아버지나요?》

《하하하, 찬호야, 나다. **정일**이야.》

《음? 아니 분단위원장동무가 어떻게…》

정말 뜻밖이였다. 전화는 숙제를 다 끝낸 찬호가 먼저 걸게 되여있었던것이다.

《그래 아직 숙제를 다하지 못했니?》

《네번째 문제를…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려던참인데…》

《그러지 않아두 네가 그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을것 같더라.》

(그래서 먼저 전화를…)

찬호의 온몸에는 찌르르 전류가 흐르는것 같았다.

《네번째 문제를 풀지 않구선 다음문젠 풀수 없어. 교과서 20페지에 있는 공식들을 잘 연구해봐라. 그러면 실머리가 잡힐게다.》

수화기를 내려다보는 찬호의 머리속에는 서글서글하게 웃고계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모습이 선히 떠오르면서 뜨거운것이 가슴속에 꽉 차오름을 느꼈다.

친형인들 어찌 자기의 속마음을 이처럼 속속들이 알수 있으며 출장가신 아버지가 곁에 계신들 이처럼 졸음도 쫓아주고 문제풀이의 길도 열어주실수 있으랴.

찬호는 수화기를 놓칠세라 꽉 움켜쥐고 더듬는듯 말했다.

《분단위원장동무… 내 꼭 할테니… 이젠…》

《고마와, 생각해주어서. 난 숙제를 끝내구 지금껏 다음주 분단계획을 세웠다. 건설장돕기, 박물관견학 그리구 스케트경기…

수령님께서두 내가 세운 계획서를 보시구 매우 기뻐하셨어.》

찬호는 대답말을 찾지 못했다. 언제면 자기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니 자기는 너무도 멀리 뒤떨어져있음을 비로소 느끼였다.

《찬호야, 얼마 안 있어 새날이 시작된다. 래일로 숙제를 미룰수야 없지. 자, 힘을 내자.》

《응, 꼭 할게.》

결심어린 찬호의 대답은 힘있고 씨원스럽게 울렸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나니 지꿎게 달려들던 졸음도 천만리로 달아난듯 했다. 밤은 깊었으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함께 숙제를 하고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은 또랑또랑해졌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가르치신대로 교과서공식들을 리용하였다. 첫번째 공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두번째, 세번째 공식들을 연거퍼 넣어보았다. 세번째 공식에 가서야 실머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어 답이 나왔다.

《풀었다!》

찬호는 저도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마치 귀한 보물을 찾은듯 숙제장을 붙안고 방안을 빙빙 돌았다.

스케트경기에서 1등을 했어도 이보다 더 기쁘지는 못하리라.

(분단위원장동무가 알면…) 하는 생각이 앞서 전화기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전화기를 잡으려던 찬호의 손은 굳어지고말았다.

(내가 분단위원장동무의 단잠을 깨우는게 아닐가?)

찬호는 죄스러운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분단위원장동무야말로 피곤인들 오죽하랴.

분단동무들의 스케트타기를 배워주느라고 그 넓은 보통강얼음판을 달리고달리신 대원수님, 그전날에는 한밤을 지새우시며 노래련습을 지도해주신 대원수님, 이런 날, 이런 밤이 어찌 한두번만이랴.

그런데 이밤을 나를 위해 또 지새우시게 해서야 되겠는가.

생각할수록 가슴속이 뜨거워올라 래일 아침 일찍 찾아가서 답을 맞춰봐야겠다고 결심하며 책상우에 널린 책을 주섬주섬 거두기 시작했다. 이때였다.

《따릉—따르릉…》

전화종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길게 울려퍼졌다.

순간 찬호의 가슴은 떠끔하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찬호는 닁큼 수화기를 들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찬호가 서로 주고받는 문제풀이의 답들이 전화선을 타고 흐르며 보람찬 하루를 빛나게 총화하고있었다.

《모두 맞았어, 하하하, 이젠 당당한 5점생 찬호가 보인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이제는 5점생이 되였다고 남먼저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통쾌한 웃음소리…

《우리 분단위원장!》

찬호의 두볼로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찬호야, 학급장의 핀잔이 아직 내려가지 않니?》

《아, 아니, 내 생각이… 이제 학급장을 만나면 내 죄다…》

찬호의 얼굴은 또다시 불돌결에 선것처럼 확확 달아올랐다.

《나두 그러리라 믿었어. 그러니 찬호두 래일 아침 동산에 떠오르는 해를 기쁘게 맞이하게 되였구나. 그리구 온종일 얼마나 기쁘겠니.》

아닌게아니라 찬호의 마음은 지금도 고무풍선처럼 둥둥 뜨는것 같았다. 빨리 날이 밝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난 지금두 막…》

《그럴거야. 그러니 숙제를 오늘 못하면 래일 하구 래일 못하면 또 다음날로 미루군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숙제를 못하겠는가 생각해봐. 그렇게 흰수염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일을 미루다나면 아마 고슴도치 오이 걸머지듯 빚이 점점 불어나서 큰 산만 하게 될지두 몰라. 하하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와 찬호의 고막을 세차게 울리였다.

(그랬댔구나. 그래서 오늘 밤 나하구 약속을 하자구 하셨구나.)

찬호의 가슴속엔 그 어떤 든든한것이 자리잡는듯 뿌듯해지는것이였다.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가 쥐고있는 오불꼬불한 전화선처럼 이구실저구실을 대면서 숙제를 하지 않았던 자신이 막 부끄러워졌다.

《찬호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말 좀 하려무나.》

《정말 난 오늘 밤을 잊을것 같지 않아.》

《좋아,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오늘과제를 수행해야 래일을 즐겁게 맞이할수 있듯이 하루하루가 즐겁구 또 래일두 모레두 기쁘게 지낼수 있다는것을.》

《알겠어. 내 이제 다시는 숙제를…》

《그럼 이제부텀 그 〈래일〉이라는 별명을 떼버리게 됐구나. 난 네가 그 별명을 들을 때면 기분나쁘더라. 하하.》

찬호는 드디여 이 한밤을 밝히시며 전화를 걸어주시여 기어이 숙제를 하도록 이끌어주신 참뜻을 뒤늦게나마 가슴 가득 느낄수 있었다.

(숙제를 해야 래일두 모레두 언제나 기쁘단 말이지.)

온몸엔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막혔던 물목이 툭 터진듯 마음은 거뜬해진다.

《이거 나때문에… 정말 미안해.》

《아니, 괜찮아, 노래두 잘 부르구 스케트도 잘 타구. 이젠 공부까지 잘해서 지덕체과업을 다 잘 수행하게 된 찬호를 보았는데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넌 오늘 지덕체과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셈이야. 우리가 옛이야기의 쇠돌이처럼 지나간 공부를 다시 할수야 없지.

그리구 난 오늘 너때문에 수령님의 로작이랑 항일투사들의 회상기랑 많이 학습했어. 그러니 내가 도리여 너한테 고맙다구 해야지.

자, 이만하구 발편잠을 자자.》

《그래 잘 있어.》

찬호는 전화기앞에서 오래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참으로 지덕체의 빈구석을 메꾸어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고 온밤을 밝히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세차게 세차게 파도쳐왔다.

노르스름한 탁자우에서 울려나오는 전화기의 종소리!

그것은 정녕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늘은 어떻게 살고 래일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영원한 생활의 종소리였다.

찬호는 가슴속에서 그 정다운 전화종소리가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 온몸에 울려퍼짐을 느꼈다.

찬호는 창문보를 활짝 열어젖혔다.

밝은 달빛이 하얀 눈우에 함뿍 쏟아져내리며 수억만개의 은구슬로 되여 령롱한 빛을 뿌리고있다. 참으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뜻깊은 밤이였다.

(강응만)

△ 읽기투

읽기투란 글의 내용과 글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읽기흐름새를 말한다.

읽기투는 글내용과 글체의 특성에 따라 이야기식읽기투, 느낌식읽기투, 해설식읽기투, 입말식읽기투, 선동식읽기투로 나눈다.

이야기식읽기투란 여러 사람들앞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읽는것을 말한다. 사건이 펼쳐지는 바탕글을 읽을 때 쓴다.

느낌식읽기투란 감정을 살려서 읽는것을 말한다. 시나 주정토로를 읽을 때 쓴다.

해설식읽기투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읽는것을 말한다. 여러가지 해설글을 읽을 때 쓴다.

입말식읽기투란 생활에서 주고받는 입말처럼 읽는것을 말한다. 글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읽을 때 쓴다.

선동식읽기투란 선동적이며 호소적으로 읽는것을 말한다. 맹세문, 호소문, 선동문 등 선동성과 호소성이 높은 글들을 읽을 때 쓴다.

읽기교재

8. 유 산

주체15(1926)년 봄이였다.

화창한 봄은 지상만물에 기름진 생명의 즙을 주며 새 계절을 한껏 노래하고있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 봄은 만사람이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리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건강만은 소생시키지 못하였다.

황씨와 김씨로인의 도움으로 일제경찰의 포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그때 입은 동상으로 난치의 병을 얻은데다가 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해 분과 초를 아껴가시며 일하셔야 했던 나날들이 끝내 선생님의 건강을 넘어뜨린것이였다.

선생님께서 병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손님들이 련일 찾아왔다. 언제나 토방우에는 대여섯컬레의 낯선 신발들이 놓여있군 하였다. 다들 병에 좋다는 약들을 지어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고 위로하였다. 아무리 돈에 궁한 사람도 인삼 한뿌리씩은 거의 가지고 왔었다. 그러나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선생님의 병에는 지극한 정성도 약도 효험이 없었다.

당시 푸쑹(무송)제1소학교에 다니시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다니실 마음의 경황이 없으시였다. 어느날 아침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가시다가 아버님이 걱정되시여 집으로 되돌아오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왜 학교에 가지 않는가고 엄하게 물으시고는 《가거라. 사내가 그래서는 큰일을 못해…》라고 하시며 대원수님을 기어이 학교로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아버님의 병구완에 온갖 정력을 다 쏟아부으시였다.

그때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군 하시였다. 주로는 선생님께서 일생을 살아오시며 얻은 체험들이였다.

그때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중에서 가장 뜻깊은 말씀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3대각오에 대한 말씀이시였다.

《혁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대각오를 가져야 한다. 아사, 타사, 동사 다시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어느날에는 벗과 우정에 대한 말씀도 장시간 해주시였다.

《사람은 어려울 때 사귄 벗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대문을 나서서는 벗들에게 의지하라고들 하는데 다 뜻이 있는 말이다. 생사고락을 같이할 진정한 벗은 사실상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

이렇게 시작하신 선생님의 말씀은 매우 교훈적인것이였다.

좋은 동지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것도 아니다. 금이나 보석을 캐내듯이 힘을 들여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키워내야 하는것이다. 선생님께서 한평생 조선과 만저우(만주)벌판을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니신것도, 강반석어머님께서 한뉘 손님시중을 드느라고 배를 곯으며 고생하신것도 다 동지를 얻기 위한것이였다.

나라와 민중을 위한 진심만 있으면 좋은 동지는 얼마든지 얻을수 있는것이다. 문제는 뜻이고 마음이다. 돈은 없어도 뜻만 통하면 서로 동지가 될수 있다. 백만금을 가지고서도 얻지 못하는 우정을 단 한모금의 숭늉이나 한알의 감자를 가지고 얻는것도 다 그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병중에 계시면서도 제일 그리워지는것이 친구들이라고 하시며 좋은 동지들을 많이 사귀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재산가도 아니고 세력가도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계시였다. 그것을 재산이라고 할수 있다면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을 가지고있는셈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동지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였다. 그렇기때문에 동지들도 목숨을 걸고 선생님을 보호해주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가지가지의 풍상고초를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헌신할수 있은것은 동지들이 선생님께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기때문이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몇달동안 침식을 잊고 병마와의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선생님을 정성껏 간호해드리시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고 대신할수 없는 눈물겨운 지성이였다. 그러나 강반석어머님의 초인간적인 지성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효성도 동지들의 뜨거운 정성도 선생님을 끝내 구원하지 못하였다.

주체15(1926)년 6월 5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고향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이역의 자그마한 지붕밑에서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하신채 세상을 떠나시였다.

세상을 떠나시기 앞서 선생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께 이런 유언을 남기시였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 갈것 같소. 나라가 독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세우고 고향에 가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 놓이오. **성주**를 부탁하오. 내가 **성주**를 중학까지 공부시키자고 했는데 글러진것 같소. 당신이 할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먹더라도 중학까지는 공부시켜주오. 그다음 그아래 동생들은 **성주**가 할탓이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신께서 늘 차고 다니시던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주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커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라고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대원수님의 삼형제분을 불러앉히시고 마지막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가시였다. 거듭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으셨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시고 동지들을 찾으시였다. 힘이 진하면 지팽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움켜삼키시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가군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한평생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으시였고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으시였으며 오로지 나라의 광복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물욕도 없으시였고 사리사욕도 없으시였다. 돈이 생기면 자제분들에게 사탕을 사먹이고싶어도 꾹 참고 한푼두푼 모아서 풍금을 사다가 학교에 기부하시였다. 인간으로서도 청렴하게 사시였고 혁명가로서도 결백하게 사시였다. 실로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은 자신을 생각하시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시고 가정을 생각하시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신 혁명가의 한생이였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김형직선생님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물려주신 유산의 전부였다.

유산, 세상에는 억만금의 재산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기록은 있어도 이처럼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을 넘겨주고 받은 례는 없다. 이것은 오직 한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바쳐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만이 넘겨주실수 있는 유산이였고 자신의 모든것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시려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만이 받으실수 있는 유산이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였다. 장례날에는 샤오난문(소남문)거리가 미여지게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난베이만(남북만)각지와 지엔다오(간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평소에 선생님을 따르고 흠모하던 수많은 동지들과 친구들, 제자들, 어제날의 환자들이 꼬리를 물고 푸쑹으로 밀려들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묘소는 샤오난문거리에서 10리가량 떨어진 터우다오쑹화강(두도송화강)기슭의 양디촌(양지촌)에 쓰게 되였다. 생전에 그 마을로 자주 다니신 선생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도 그처럼 살뜰하게 지내던 사람들속에 계시고싶었을것이였다.

선생님의 장례식날에는 양디촌에 이르는 10리길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였다. 독립운동자들도 상여를 메고가면서 목놓아울었다.

푸쑹지방의 조선녀성들은 선생님의 장례식날부터 보름동안 머리에서 흰 댕기를 풀지 않았다.

김형직선생님의 서거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으며 가슴속에 메꿀수 없는 상실로 되였다.

김형직선생님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있어서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어리신 나이때부터 혁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주신 스승이시였고 지도자이시였다.

한순간에 아버님을 잃고 스승을 잃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홀로 강가에 나가앉으시여 멀리 조국의 하늘을 그려보시며 눈물을 짓군 하시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유산에서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투쟁무대로 힘찬 걸음을 내디디시였다.

지원, 3대각오, 동지획득, 두자루의 권총…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투쟁의 디딤돌이 된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유산으로 되였다.

〔속 담〕

○ 꽃이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가 온다.
품성이 좋고 외모가 아름다와야 사람들이 마음을 줄수 있다는 말.

○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를 위하여 보람있는 일을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말.

9. 《소년빨찌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산에 들에 꽃이 피여 종달새 노래하던
나서 자란 우리들의 마을을 보아라
깊은 밤 어둠속에 신음소리 흐른다
아 나어린 심장에 붉은 피는 끓어
나섰다 싸움의 길로 고향을 위하여

푸른 언덕 올라서서 배움에 즐겁던
자랑스런 우리들의 학교를 보아라
타다 남은 담벽에 동무의 피 어려있다
아 나어린 가슴에 증오의 불은 일어
나섰다 복수의 길로 동무를 위하여
…

우리들이 학교에 갈 때나 대렬행진을 할 때 늘 부르는 노래, 사람들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소년빨찌산의 노래!

나는 이 노래를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부른다.

이 노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때 창작되여 학생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미제원쑤놈들은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모조리 빼앗고 불사르고 닥치는대로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사랑속에서 그처럼 행복하고 기름지던 생활은 미제강도놈들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하였다.

나서자란 고향마을은 깊은 밤 어둠속에 잠겨 신음소리 흐르고 행복한 웃음소리, 글소리 높던 정든 집과 학교는 간 곳이 없었다. 타다 남은 담벽엔 사랑하는 부모와 귀여운 동생들, 동무들의 피가 어려있었다.

이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기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였다.

소년단원들의 나어린 가슴에도 복수의 피가 끓어올라 미제원쑤놈들을 때려부시는 싸움의 길에 나섰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마을을 피로써 지키자!》 이렇게 두 주먹을 틀어쥐고 단기앞에서 맹세다졌다.

그리하여 안주, 맹산 등 곳곳에서 소년빨찌산을 뭇고 원쑤놈들을 쳐부시는 판가리싸움에 나섰다.

소년단원들은 원쑤놈들의 무기와 탄약도 빼앗아내고 정찰임무도 수행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원쑤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삐라활동도 활발히 벌렸다. 뿐만아니라 통신련락, 도로와 자동차파괴, 통신선절단, 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건물우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는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원쑤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우리는 미제원쑤놈들과의 결전의 길에서 서강렴, 리헌수 등 훌륭한 소년단원들을 적지 않게 잃었다.

그들은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여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러르며 끝까지 싸웠고 최후의 순간에도 소년빨찌산의 노래를 부르며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미제원쑤와의 결사전에로 부르던 노래, 우리 소년단원들이 사형장에서도 붉은넥타이를 휘날리며 가슴 펴고 부르던 소년빨찌산의 노래!

지금은 우리 300만 소년단원들이 목청을 합치여 이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결사옹위해나간다. 나도 이 길에서 발걸음과 마음을 하나로 맞추어나간다.

만약 원쑤놈들이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전체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때의 소년빨찌산들처럼 싸워 원쑤놈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고야말것이다.

언제나 복수의 피를 끓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소년빨찌산의 노래!

나는 언제나 이 노래를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겠다.

10. 신념과 의지의 찬가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죽어도 못 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숨져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굳센 의지라 함은
그것은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것이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당신의 기질을 받은 저입니다
당신의 숨결을 받은
리인모입니다

유혹의 전향문이 괴롭힐 때마다
내 심장속에 계신분은 어버이수령님
불사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신분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해가 바뀌여 머리가 희여져도
언제나 당신은 나의 하늘이시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청춘기에도 그 신념
그래서 70대 황혼기에도 그 의지

당신은 강하십니다
강하여 언제나 이기십니다
만난을 웃음으로 이기시고
천지를 한손에 다스리는 장군이옵니다

내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하제일장군인 당신이 계시여 무적인
강한 신념과 의지의 우리 공화국을
언제나 이기는 기질의 인민을
언제나 이기는데 습관된 군민을

당신의 신념으로 력사가 흐르고
당신의 의지로 지구가 돌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이시여
참된 신념과 의지의 꽃다발
이 로병은 영명한 당신께 드리옵니다

(리인모)

읽기교재

11. 박돌의 죽음

밤은 자정이 훨씬 넘었다.

이웃의 닭소리는 검푸른 새벽빛속에 맑게 흐른다.

높고 푸른 하늘에 야광주를 뿌려놓은듯이 반짝이는 별빛은 고요한 대지를 향하여 무슨 묵시를 주고있다. 나무잎에는 이슬듣는 소리가 고요하다.

여름밤이언만 새벽녘이 되니 부드럽고 쌀쌀한 기운이 추근하게 만상을 소리없이 싸고돈다.

남자인지 녀자인지 어둠속에 잘 분간할수 없는 희슥한 그림자가 동계사무소앞 좁은 골목으로 허둥지둥 뛰여나온다.

고요한 새벽이슬이 추근한 땅을 울리면서 나오는 발자취는 퍽 산란하다.

쿵쿵하는 음향은 여러 집 울타리를 넘고 지붕을 건너서 어둠속으로 규칙없이 퍼져나간다.

어느 집 개가 몹시 짖는다. 또 다른 집 개도 컹컹 짖는다. 캥캥한 발바리소리도 난다.

뛰여나오는 그림자는 정직상점 뒤골목으로 휙 돌아내려간다. 쿵쿵쿵… 서너집 내려와서 어둠속에 재빛같이 보이는 커다란 대문앞에 딱 섰다.

헐떡이는 숨소리는 고요한 공기를 미미히 울린다. 그 그림자는 대문에 탁 실린다. 빗장과 대문에 맞찡겨서 삐걱하고는 열리지 않았다.

《문을 좀 벗겨주오!》

무엇에 쫓긴듯이 황겁한 소리는 대문안마당의 어둠을 뚫고 저편 푸른 하늘아래 룡마루선이 죽 그인 기와집에 부딪쳤다.

《문을 좀 열어주오!》

이번에는 대문을 두드리고 밀면서 고함을 친다. 소리는 퍽 황겁하나 가늘고 챙챙한것이 녀자다 하는것을 직각케 한다.

《에구, 어찌겠는구? 이 집에서 자음메? 문을 빨리 벗겨주오!》

절망한듯이 애처로운 소리를 치면서 문을 쿵쿵 치다가는 삐걱삐걱 밀기도 하고 땅에다가 배를 붙이고 대문밑으로 기여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대문 울리는 소리는 주위의 공기를 몹시 찢는다.

닭은 홰를 치고 꼬꽤요 한다.



《그게 뉘기오?》

안에서 선잠 깬 녀편네소리가 들린다.

《에구, 깼구만!》

엎드려서 배밀이하던 녀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내요. 문을 좀 벗겨주오!》 한다. 그 소리는 아까보다 좀 나직하다.

《내라는게 뉘기오! 어째 왔소?》

안에서는 문을 벌컥 열었다. 열린 문이 벽에 부딪치는 소리가 탁하고 울타리에 반향하였다.

《초시 있소? 급한 병이 있어서 그럼매!》

《에헴》 하고 사내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칙칙거리는 어린애울음소리가 난다. 불빛이 언뜻하면서 문으로 녀인이 선잠 깬 하품소리를 《으앙》 하며 맨발로 저벅저벅 나와서 대문빗장을 뽑았다.

《뉘기오?》

들어오는 사람을 기웃이 본다.

《내요.》

밖에 섰던 녀인은 대문안에 들어섰다.

《나는 또 뉘기라구? 어째서 남 자는 밤에 이 야단이요?》

안에서 나온 녀인은 입을 실룩하였다.

《에구, 박돌이 앓아서 그럼메! 초시 있소?》

밖에서 들어온 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첨 비슷하게 오른쪽볼이 붉은 주인 녀편네를 건너다본다.

《있기는 있소.》 주인 녀편네는 홱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저 두에 파층댁이로구마! 의원이구 약국이구 걷어치우오! 잠두 못자게 하구!》 소리를 지른다. 캥캥한 소리는 몹시 쌀쌀하였다. 지금온 녀인은 퇴마루아래에 서서 머리를 숙였다. 울면서 한숨을 휴 쉬였다.

정주에서 한참동안이나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덜컥하면서 퇴마루 로인방문창에 불빛이 그득찼다.

《애햄, 들오!》

다 쉬여빠진 호박통을 두드리는듯 한 사내의 소리가 들린다. 밖에 섰던 녀인은 퇴마루에 올라섰다. 문을 열었다. 방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은 마루에 떨어졌다. 약냄새는 코를 쿡 찌른다.

《하— 그거 안됐군… 그러나 나는 갈수 없는데…》

몸집이 뚱뚱하고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한 의사(김초시)는 창문정면에 놓인 약장에 기대앉았다.

《에구, 초시사 그래 쓰겠소? 어서 가봐주오.》

문앞에 황공스럽게 쫑그리고 앉은 녀인의 사들사들한 낯에는 어색한 웃음이 떠올랐다.

《글쎄, 엔만 하문사 그럴리 있겠소마는 어제부터 아파서 출입이라구 못하구있소. 에헴, 에헴 악.》

의사는 입에 물었던 담배대를 뽑아들더니 안 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끄집어내여 가래를 타구에 뱉는다.

《그게(박돌) 애비없이 불쌍히 자란게 죽어서 쓰겠소? 거저 초시께 목숨이 달렸으니 살려주오.》

의사는 때국이 피죄한 녀인을 힐끗 보더니

《별말을 다하오. 내 염라대왕이니 목숨을 쥐고있겠소. 글쎄 하늘이 무너진대도 못 가겠소.》 하며 담배연기를 홱 내뿜고 이마를 찡기면서 천장을 쳐다본다. 흰 연기는 구름발같이 휘휘 돌아서 꺼멓게 그을은 약봉지를 데룽데룽 달아놓은 천장으로 기여올라서는 다시 죽 퍼져서 방안에 찼다. 오줌냄새에 여지없는 방안의 공기는 캐한 연기와 어울려서 코가 저리도록 불쾌하였다.

《제발 살려줍시오. 네? 그 은혜는 뼈를 갈아서라도 갚아드리오리! 네, 어서 가봐주오.》

《글쎄 못 가겠는걸 어찌겠소? 이제 바람을 쏘이고 걷고나면 죽게 앓겠으니… 남을 살리자다가 제 죽겠소.》

《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이요? 어제 하루 그래 또 밤새끈 앓구서리.》

의사의 말뒤로 이어 정주에서 주인 녀편네가 캥캥거린다.

녀인은 머리를 숙이고 앉더니

《그러문 약이라두 몇첩 지어주오.》 한다.

《약종이 부족해서 약을 못 짓는데.》

의사는 몸을 비틀면서 유들유들한 목을 천천히 돌려서 약장을 슬그머니 돌아본다.

《약값념려는 조금도 말고 지어주오!》

《아 글쎄, 약종이 없는것을 어떻게 짓는단 말이요? 이거 보오!》 하더니 빈 약서랍 하나를 뽑아서 땅바닥에 털컥 놓는다.

《집에 돼지새끼 하나 있으니 그거 모레 장에 팔아드릴게 좀 지어주오.》

《하, 이 앞집 김주사도 어제 약 지라 왔다가 못 지어갔소.》

의사는 어이없다는듯이 입을 벌린다.

《그래 못 제주겠소?》

푹 꺼진 녀인의 눈은 이상스럽게 의사의 낯을 쏘았다. 의사는 《글쎄 어떻게 짓겠소.》 하면서 녀인이 보내는 시선을 피하려는 듯이 미닫이두껍집에 붙인 산수화를 본다.

《에구, 내 박돌이는 죽는구나! 한심한 세상두 있는게?》

녀인의 소리는 애참하게 울음에 젖었다. 때가 지덕지덕한 뺨을 스쳐흐르는 눈물은 누데기같은 치마에 떨어졌다.

《에 곤하군. 아— 함! 어서 가보오.》

의사는 하품과 기지개를 치면서 일어섰다. 녀인은 눈물을 쓱쓱 씻더니 벌컥 일어섰다.

《너무 한심하구만! 돈이 없다구 너무 업시비 보지 마오. 죽는 사람을 살려주문 어떠오? 혼자 잘 사오.》

녀인의 눈에는 이상한 불빛이 선뜩하였다. 그 목소리는 싹 에는 듯이 애처롭게 들렸다. 의사는 가슴이 꿈틀하였다.

녀인이 간 뒤에 의사는 대문을 채우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까짓 거렁뱅이덜게 약을 주구 언저게 돈을 받겠소? 아예 주지 마오.》

주인 녀편네는 뾰로통해서 양양거린다.

《흥, 그리게 뉘가 주나!》

의사는 방문을 닫으면서 승리나 한듯이 코소리를 친다.

어머니가 허둥지둥 집에 돌아와보니 《에구 제마(어머니)! 에구 배야!》 박돌이는 이를 갈고 두손으로 배를 웅크려잡으면서 몸을 비비틀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는 다시 눕고 누웠다가는 엎드리고 하며 몸 지접할 곳을 모른다.

뒤집에 있는 젊은 주인이 나왔다.

《어제 밤에 무스거 먹었소?》

《갱게(감자)를 삶아먹구… 그리구 너무두 먹고싶어하기에 뒤집에서 버린 고등어대가리를 삶아먹구서는 먹은게 없는데!》

《응, 그게루군! 문고등어대가리를 먹으문 죽는데두! 그거는 무에라구 축축스럽게 주어먹소?》

젊은 주인은 입을 실룩하였다.

박돌 어머니는 매를 든 노한 상전앞에 선 어린 종같이 젊은 주인

을 쳐다본다.

박돌의 호흡은 각일각 미미하다. 따라서 목에서 끓는 담소리도 점점 가늘어진다.

《꺽—》

박돌이는 피끼 한번을 하였다. 따라서 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 박돌이는 소리없이 눈을 휙 힙떴다. 두눈의 검은자위는 곤줄을 서고 흰자위만 보였다. 그의 낯빛은 핼끔하고 푸르다.

어머니는 박돌의 낯을 들여다보면서 싸늘한 박돌의 가슴을 세차게 잡아흔들었다.

《바… 바…박돌아! 애고 내 박돌아! 너는 죽었고나! 약 한첩, 침 한대 못 맞아보고 너는 죽었고나! 에구 하느님도 무정하지, 원통해서! 꺽꺽 흑흑… 글쎄 무슨 명이 그리도 짜르냐? 에구!》

그는 박돌의 가슴에 푹 엎드렸다.

박돌의 몸과 그의 머리에 모여앉았던 파리떼는 우와 하고 날아가다가 다시 모여앉는다.

머리를 들고 또다시 박돌의 푸른 낯을 들여다보며 《박돌아, 야 박돌아!》 부르다가 다시 쓰러지면서 《먹고싶은것도 못 먹고 입고싶은것도 못 입고 항상 배를 곯다가…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죽다니? 휴! 제마, 제마! 나도 학교를 갔으문 하는것도 이놈의 입이 원쑤돼서 못 보내고! 흑흑…》

자기가 발붙이고 잡았던 모든 희망의 줄은 툭 끊어졌다. 더 바랄것 없다 하였다.

이때 그의 눈속에는 보이는것이 있었다.

낮인가? 밤인가? 밤같기는 한데 어둡지 않고 낮같기는 한데 별이 없는 음침한 곳이다. 바람은 분다 하나 나무가지는 떨리지 않고 비는 온다 하나 비소리는커녕 비발도 보이지 않는 흐리마리한 빛속이다. 살이 피둥피둥하고 얼굴이 검붉은자가 박돌이의 목을 매여끌고 험한 가시밭속으로 달아난다.

박돌 어머니의 모듭뜬 두눈에서는 이상스러운 빛이 창문을 냅다 쏜다. 그는 돼지를 보고 으르는 개처럼 이를 악물고 번쩍 일어서더니 창문을 냅다 차고 밖으로 뛰여나간다.

《야, 이놈아! 저놈이 박돌이를 끌고 저기를 가는구나!》

그는 정신없이 어디론가 뛰면서 손벽을 딱딱 친다. 산산한 머리카락은 휘휘 날린다.

《에구, 저게 웬일이야?》

《박돌 어머니가 미쳤네!》

길에 섰던 사람들은 눈이 둥그래 피하면서 한마디씩 뇌인다. 웬개 한마리가 짖으면서 그뒤를 쫓아간다.

박돌 어머니는 이를 박박 갈면서 서너집 지나 내려오다가 커다란 대문 단 기와집으로 쑥 들이뛴다. 그 대문에는 김병원진찰소라는 팔분으로 쓴 간판이 붙었다.

《저놈이… 저 방으로 들어가지? 이놈, 네 죽어봐라. 가면 어데로 가겠니?

이놈아, 내 박돌이를 어쨌니? 내놔라. 내 박돌이를 내놔라! 글쎄 내 박돌이를 어쨌니.》

두눈에 불이 휑한 박돌 어머니는 퇴마루 놓인 방 미닫이를 차고 뛰여들어가서 그 집주인 김초시의 멱살을 잡았다.

멱살을 잡힌 김초시는 눈이 둥그래서

《이… 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황겁하여 웃방으로 들이뛰려고 한다.

《이놈아! 네가 시방 우리 박돌이를 끌어다가 불속에 넣었지, 박돌이를 내놔라! 박돌아!》

날카롭고 처량한 그 소리에 주위의 공기는 싹싹 깨여지는듯 하였다.

《아… 아— 박돌이를 내 가졌느냐? 웬일이냐?》

박돌이란 소리에 김초시 가슴은 뜨끔하였다. 김초시는 벌벌 떨면서 박돌 어머니 손에서 몸을 빼려고 애를 쓴다. 두 몸은 이리 밀리며 저리 쓰러져서 서투른 씨름군의 씨름같다.

약장은 넘어지고 요강은 엎질러졌다. 우시시한 초약과 넌들넌들한 가래며 오줌이 한데 범벅이 되여서 돗자리에 흩어졌다.

《야, 이년아! 이 더러운년아! 남의 집에 왜 와서 이 야단이냐?》

얼굴에 독살이 잔뜩 나서 박돌 어머니에게로 달려들던 주인 녀편

네는 험상하게 피흔적이 어려있는 박돌 어머니의 입과 퀭한 그 눈을 보더니

《에구, 저 에미네 미쳤는가!》 하면서 뒤로 주춤한다.

김초시의 멱살을 잔뜩 부여잡은 박돌 어미는 이를 야금야금하면서 주인 녀편네를 노려본다.

주인 녀편네는 뛰여다니면서 구원을 청하였다.

김초시집마당에는 어린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모두 박돌 어머니의 꼴을 보고는 얼른 대들지 못한다.

《음, 이놈아!》

박돌 어머니는 김초시의 상투를 휘여잡으며 그의 낯에 입을 대였다.

《에구! 사람이 죽소!》

방바닥에 털컥 자빠지면서 부르짖는 김초시의 소리는 처량히 울렸다.

사내 몇사람은 방으로 뛰여들어갔다.

《이놈아, 내 박돌이를 불에 넣었으니 네 고기를 내가 씹겠다.》

박돌 어머니는 김초시의 가슴을 타고 앉아서 그의 낯을 물어뜯는다. 코, 입, 귀… 검붉은 피는 두 사람의 온몸에 발리였다.

《어째 저럼메?》

《모르겠소!》

밖에 선 사람들은 서로 의아해서 묻는다. 모든 사람은 일종 엷은 공포에 떨었다.

《그까짓 놈 죽어두 싸지! 못할짓도 하더니.》

이렇게 혼자말처럼 뇌이는 사람도 있다.

(최서해)

△ 문학작품의 구성

집을 짓자면 기둥은 어데다 세우고 지붕은 또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 설계가 있어야 하는것처럼 글을 짓는데도 글을 엮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의 구성이란 집의 설계와 같이 문학작품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미는 형식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작품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그들의 호상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갈등, 생활현상들에 대한 작가의 느낌말 등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이루고있는 모든 요소들을 옹근 하나의 이야기줄거리로 엮어놓은 작품의 짜임을 의미한다.

단편소설 《박돌의 죽음》은 박돌의 어머니와 의사(김초시)를 등장시키고 그들간의 호상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즉 박돌의 병을 보아달라고 한밤중에 김초시를 찾아가 애원하는 박돌의 어머니, 박돌의 불쌍한 죽음과 그에 울분을 터뜨려 김초시에게 항거해나서는 박돌의 어머니 등의 이야기로 구성을 엮고있다.

읽기교재

12. 《한집안식구》들

늙은 승냥이가 새끼 세마리를 데리고 살고있었습니다. 음침하고 너렁청한 굴안에는 칼을 휘두르며 빼앗아온 금붙이들이며 깊은 밤에 담을 타고 기여들어 도적질해온 재물들이 궤짝마다 가득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쩍하면 궤짝에 붙어놓았고 궤짝을 들추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미가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였습니다. 그만 역정이 난 늙은 승냥이는 어느 하루 집을 나갔다가 배부른 자루를 하나 지고왔습니다. 무슨 맛있는것이냐고 새끼들이 우르르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자루안에서는 어디서 훔쳤는지 망짝같은 자물쇠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어미는 곧 자물쇠들을 궤짝마다 절컥절컥 채워놓았습니다.

《흥, 도끼로 까부시지 뭐.》

새끼들은 눈알을 굴리며 옹알거렸습니다. 그때문에 어미한테 대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언제 제 어미를 물어제낄지도 모를 일이였습니다. 갈수록 불안을 느끼던 늙은 승냥이는 새끼들이 다 크자 제꺽 세간을 내보냈습니다. 그제야 어미승냥이는 시름을 놓게 되였습니다.

(호호, 앓던 이 빼버린것만큼 씨원하군!)

그후 새끼들은 어미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늙은 승냥이는 그것이 흡족했으나 제 생일날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이 되자 늙은 승냥이는 새벽부터 떡이며 술, 고기를 잔뜩 걸머지고 들어설 새끼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긴긴 해가 서산에 꼴깍 넘도록 누구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버럭 화가 동한 늙은 승냥이는 다음날 머리에다 질끈 수건을 동이고 나가 넘어져 앓는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도 새끼들은 움쩍하지 않았습니다.

(쌍 퉤질 놈의 새끼들!)

더더욱 악이 오른 늙은 승냥이는 넙적 드러누운채 이번에는 죽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때에야 새끼들은 약속이나 한듯 땀에 젖어 굴안으로 뛰여들었습니다.

맏이가 먼저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허, 어이구 며칠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까지도 정정하시더니 이 웬일이요. 바로 그때 말씀하시기를 재물궤짝들은 관례대로 이 맏이한테다 대물림시키겠다더니, 어허 어이구…》

둘째도 질세라 한발 나서서 엎드리며 방바닥을 쾅쾅 쳐댔습니다.

《아이고 대고… 우리 집에 오시여선 뭐라 하셨소. 장차 보물궤짝들을 물려줄 대상은 형제들가운데서 제일 눈알이 곧추 배긴 이 둘째라더니, 아이고 대고…》

셋째는 어느새 어미앞에 바싹 다가앉아 눈에다 연신 침을 발라가며 울음을 터쳤습니다.

《앙앙앙… 우리 집에 와 묵으실 땐 효성이 지극하다고 날 그렇게도 귀해하시더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막냉이가 가문의 대를 이을 기둥이라면서 넘겨주겠다던게 저 궤짝들이 아니였소. 앙앙앙…》



그때였습니다. 죽은듯이 너부러져있던 늙은 승냥이가 참다못해 벌컥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성이 꼭두까지 올라 벽력같이 호령쳤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엉? 이 괘씸한 놈들아!》

순간 새끼들은 끔찍이도 놀래였으나 곧 아무 일도 없었던듯 태연히 대꾸했습니다.

《거짓죽음에 거짓넉두리야 제격이지. 무슨 잘못이라고 호령질이람!》

그리고는 가지고 온 멜바를 걸어 미친듯이 궤짝들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놈들아, 안된다!》

늙은 승냥이는 눈알을 까뒤집고 새끼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끼들의 힘을 당할수가 없었습니다. 새끼들의 행패질에 허양 나딩군 늙은 승냥이는 얼없이 새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끼들은 궤짝들을 저마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차고 들이받으며 싸움을 벌렸습니다.

× ×

이 승냥이네 식구들처럼 재물을 위해선 제 피줄까지도 물고 뜯으며 날뛰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악착한 본성입니다.

(김룡길)

〔속 담〕

○ 덕은 덕으로 대하고 원쑤는 원쑤로 대한다.
선의를 표시하는데 대하여서는 선의로 대하고 침략하려는자들에 대하여서는 적으로, 원쑤로 간주한다는 말.

○ 무식한 벗은 원쑤 못지 않게 무섭다.
가까운 사이의 벗이라도 무식하면 제딴에는 잘하느라고 한것이 일을 크게 그르치여 큰 해를 가져다줄수 있다는 말.

말하기교재

13.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동무들!

모두 귀를 기울이고 방송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 저 노래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키며는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
향도성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세
…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이 노래속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계급적대립이 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운명이 함축되여있습니다.

력사는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주의는 버리면 죽음!

제국주의자들의 침바른 설교에 현혹되여 사회주의리념을 헌신짝처럼 버린 배반자들을 우리 함께 력사의 심판대우에 세워봅시다.

그래 제국주의자들이 주겠다던 황금덩이를 주었는가, 자가용승용차가 생겼는가, 호화별장이 차례졌는가.

제 살점도 떼여줄것 같이 아양을 떨던 자본주의가 당신들에게 준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얼을 빼내여 《자유화》의 세상에 끌어다놓고는 하루아침에 황금의 노예로 만들고 차디찬 역기다림칸의 한지바닥에 내던진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본주의는 그처럼 행복하고 그처럼 희망넘친 래일을 안고 살던 당신들의 기름진 생활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뭉개버렸습니다.

동무들!

나에게는 송도원국제야영소에서 사귄 한 동무가 있었습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동자, 웃음소리는 높고 우주세계를 정복하겠

다던 꿈많은 소년이였습니다.

얼마전에 바로 그 소년의 모습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보게 된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앞가슴에 날리던 붉은넥타이는 어떻게 하고 웃음많던 귀염성스러운 얼굴은 어디에 두고 랑만에 넘친 그 꿈은 어디에 버리고 동정과 하소연, 수심에 잠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까.

한쪼각의 빵을 위해 골목을 헤매고 학비가 없어 승용차를 따라다니며 먼지를 닦아주지 않으면 안되게 된 소년,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한밤을 지새우며 소설에 나오는 복면강도를 저주하던 바로 그 소년이 때국이 흐르는 손으로 남의 주머니를 털다가 잡혀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하에서야 언제 한번 먹을 걱정, 입을 걱정, 공부할 걱정을 해보았습니까.

이제 그가 병에 걸려보십시오. 자본주의는 약은커녕 시궁창의 오물처럼 내버릴것입니다.

그래 저 소년이 당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누가 꿈많던 저 소년을 황금의 노예로, 거지로, 강도로 만들었습니까.

과연 당신들은 래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동무들!

사회주의를 버린 후과는 생활파탄의 테두리를 벗어나 민족간의 류혈적인 참극에로까지 번져가고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민족인 한 가정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간의 분쟁이 일어나자 아들은 아버지편이 되고 딸은 어머니편이 되여 서로 자기 민족을 두둔하면서 매일같이 싸움질을 했습니다. 하루는 도박에 미친 아들이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협박하던 나머지 야수같이 달려들어 목을 눌러죽였습니다. 살인자인 아들이 돈뭉치를 꺼내들고 너털웃음을 치며 돌아가려는데 이

번엔 분통이 터진 딸이 식칼을 들고 와서 오빠의 잔등에 박았습니다.

딸은 부르짖었습니다.

《아, 나는 살인자다. 살인자인 오빠를 죽인 살인자이다. 화목하던 우리 가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진짜살인자는 누구인가. 아,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동무들！ 그러니 사회주의를 지켜야 옳겠습니까 버려야 옳겠습니까？ 우리 함께 량심에 물어봅시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버려서는 절대로 안되며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기때문입니다.

태여나면 먹을 권리,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부터 먼저 지니고 자라는 우리 세상, 우리 제도！

이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차례지는것이 아닐진대 우리 어찌 목숨내걸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밑에 피로써 마련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으며 우리 인민의 버릴수 없는 혁명적신념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빛나는 령도의 결정체입니다.

사회주의가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라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은 우리모두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세상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영원하고 끝없이 번영하리라는것을.

동무들!

제국주의자들이 제 아무리 발광해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깨뜨릴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선 우리의 일심단결의 대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쳤습니다. 그 대오속에서 우리 300만의 소년단원들도 꼭같은 목소리로 소리높이 부릅니다.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향도성 받들어 온 세상에 빛내세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천만이 산악처럼 일떠섰습니다.

남들이 버린대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갈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입니다.

△ 웅변

웅변이란 막힘없이 말을 잘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이다.

웅변을 잘하자면 우선 웅변내용을 환히 통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웅변에서 단어발음과 속도조절을 잘해야 한다.

또한 웅변의 흐름을 잘 살려야 한다. 어느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낮추며 또 어느 대목에서 감정이 낮아지고 높아지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웅변에서는 또한 목소리의 크기와 소리빛갈을 내용에 맞게 잘 조절해야 한다. 격동적이고 호소적이며 힘을 주어야 할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며 내용을 차근차근 엮어내려가야 할 부분에서는 듣기 좋게 목소리를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리빛갈을 써야 한다.

웅변을 잘하자면 끝으로 얼굴표정과 몸짓, 손짓, 머리동작 등을 내용에 맞게 잘해야 한다.

14. 우리 나라 꽃동산

만경대아침의
노을빛처럼
김일성화 송이송이
곱게 폈어요

백두산아침의
노을빛처럼
김정일화 송이송이
곱게 폈어요

김일성화 **김정일**화
활짝 핀 강산
천만송이 꽃봉오리
따라피지요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다보는
우리 나라 꽃동산
행복의 동산

(김승길)

△ 동요, 동시

동요, 동시는 다같이 어린이들의 생활감정을 노래한 시이다.

동요, 동시는 아동시라는데서 같은 점이 있으나 서로 다른 점도 가지고있다.

동요는 곡을 붙여 노래부를수 있게 씌여진다는 점에서 동시와 다르다.

동요는 시행과 시련을 일정한 수에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쓴다.

동시는 동요와 달리 노래부르기보다 읊기 위해서 씌여진다.

동시는 시행이나 시련을 일정한 수에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

동요, 동시를 잘 쓰자면 무엇보다먼저 사상적알맹이인 종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동요, 동시에서 운률을 잘 살려야 한다. 특히 동요의 운률은 2·3조, 3·4조, 4·2조, 4·4조, 7·5조 등으로 숨결에 걸리지 않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요, 동시는 또한 어린이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말마디들을 찾아 써야 한다.

읽기교재

15. 9월의 아침에

언제 보아도 마음 밝아지는
푸른 하늘 찬란한 해빛
내가 사는 집 지붕우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띄우며
조용히 조국을 불러보는
9월의 아침

그러면
사회주의 꽃피는 땅에서 사는

한없는 행복과 긍지
한껏 부푸는 이 가슴에
이해 따라 하고싶은 말
어이하여 이다지도 많아지는가

아, 어버이수령님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이 나라의 창공높이 휘날려주신 그날에
덧없이 흐르던 내 인생에도
첫 해살이 비쳐오지 않았더냐

그렇더라
놓으면 영영 잃을것 같아
너를 지켜 목숨인들 서슴었으랴
내 군모에 너의 별을 얹고
화선천리 불구름을 헤쳤고
복구와 건설의 마치소리 드높던
언덕과 언덕을 지나
너를 휘날려오지 않았더냐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던가
얼마나 보람찬 날을 맞고 보냈던가
자유와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조국의 운명이자 내 운명임을
사무치도록 알게 된 기나긴 세월

고마움에 젖어
조국을 찾아주신 수령님의 그 자욱자욱에
조국을 빛내주신
장군님의 천만리 그 자욱자욱에

뜨거운 가슴을 대이고
삼가 큰절을 드리고싶은 마음

목이 메여라
건국의 시조이시며 아버지이신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주체의 푸른 숲이 무성하고 무성하는
사회주의조국이여
땅과 하늘에 차고 넘치는
수령님 쌓아올리신 그 위업이여

바람세찬 대공을 헤가르며 나아가는
너의 거세찬 기폭아래
민족의 오늘과 래일이 빛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빛나고
나의 삶, 나의 운명도 빛나거니

수령님 높이 띄워주시고
장군님 추켜드신 공화국기발
창공에 날으는
사회주의조국이여
찬란히 솟아오르는 아침해처럼
세월이 갈수록 번영하리라
천년만년 길이 부강하리라

(석광희)

읽기교재

16. 신로군일이 거꾸로 된 이야기

원산에서 고성쪽으로 얼마쯤 내려가면 만으로 둘러싸인 안침한 곳에 자그마한 백사장이 있다.

이 백사장을 옛날부터 신로군일백사장이라고 불렀다. 즉 신하들이 수고를 하면 임금은 편안하다는 뜻을 가진 백사장이란 말이다. 이 말은 지난날 금강산을 찾아왔던 왕들이 여기서 휴식을 즐길 때 생기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백사장을 군로신일백사장이라고 이름을 고쳐부르고있다.

왜 군로신일백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였는가.

여기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전설이 깃들어있다.

백사장나루터에는 응삼이라는 배지기로인이 있었다. 그는 나루가 마을에서 태여나 일생을 여기에서 살아오는 늙은이였다. 긴 한생에서 마을을 떠난적은 두번밖에 없었다.

처음은 일제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일본 홋까이도에서 고역을 치르던 때였으며 그다음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나가 싸운 3년이라는 기간이였다.

그만큼 그는 자기 고향을 사랑했고 제가 사는 고장보다 더 살기좋은 곳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고있었다.

그래서 응삼로인은 하루도 번지지 않고 백사장나루터를 알뜰히 거두고 꾸리였다. 하다못해 백사장에 해당화를 한포기라도 떠옮기고야 직성이 풀리는 그였다.

그러던 어느날 응삼로인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 생겼다.

대학을 졸업한 막내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글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웠다는것이였다.

이런 경사라구야, 응삼로인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 촌백성의 이름까지 물어주시다니？ 나를 애국자라고！—）

돋보기를 낀 로인의 눈에선 볼을 타고 두줄기의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하해같은 은덕에 만분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하였다.

어느날 응삼로인은 약초밭을 가꾸다가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로인이 저녁상을 물리고 텔레비죤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큰 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졌다.

（아니？ 우리 장군님께서 저렇게도 수척해지시다니…）

로인은 가슴이 왈칵 무너지는것 같았다. 나라일에 얼마나 바쁘시면 저렇게도…

그날 밤 로인은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백성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때문이였다.

다음날부터 로인은 금강산의 정기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약초를 가꾸고 자래우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령약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약초밭을 더 정성스럽게 가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일요일이였다. 그날도 약초밭을 가꾸던 로인은 쉴참에 밭머리에 누웠다가 만산에 흐드러지게 핀 꽃향기에 취해 그만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금빛뿔을 머리우에 한아름 인 사슴이 구름을 타고 파란 하늘에서 날아내려왔다.

응삼로인앞에 내린 사슴은 할아버지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로인장은 무엇때문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약초밭을 가꾸고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응삼로인은 일구월심 생각하던바를 그대로 털어놓았다.

《옛날부터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소. 하늘에 해가 있어 산천초목이 수려하듯이 나라님의 하해같은 은덕으로 평생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백성된 도리를 지키지 못하니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소그려. 그래서 그 은덕에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약초밭을 가꾸는것이요.》

로인의 말을 다 듣고난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빛뿔을 흔들었다. 그러자 난데없이 파랑새 한마리가 포르릉 날아와 사슴의 머리

우에 내려앉았다.

《이 파랑새를 따라가면 로인장의 소원이 이루어질것입니다.》

말을 마친 사슴은 뽀얗게 안개를 일으키며 사라지고말았다.

사슴을 찾다가 깨여보니 꿈이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본 파랑새가 눈앞에서 날고있었다.

파랑새는 응삼로인의 머리우를 날아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듯 앞서서 날았다. 응삼로인은 저도모르게 파랑새의 뒤를 따랐다. 한참 걸어가니 절묘한 경치가 눈앞에 안겨왔다. 명주실을 드리운듯 두줄기 폭포가 쏟아져내리는데 안개가 자욱히 피여오르고있었다.

바위를 지나는 물은 수만구슬이 흘러내리는듯 하였고 량옆으로 뻗은 수려한 산천초목들에서는 푸른 정기가 흘러넘치고있었다. 파랑새는 이상한 정기가 흘러넘치는 바위우에 사뿐 내려앉았다. 그 바위쪽을 바라보던 응삼로인은 가슴이 후드득 뛰였다. 주먹만큼 한 빨간 꽃을 쑥 내민 몇백년 묵은 산삼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이건 보통산삼이 아니구나. 하늘이 날 도와준게 분명하구나. 이 산삼을 정성껏 키웠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려야겠다.)

응삼로인은 즉시에 산삼주변을 있는 정성을 다 고여 깨끗이 거두었다.

다음날부터 응삼로인은 날마다 산삼을 가꾸러 올라가군 하였다.

며칠후 산삼을 돌아보고 마을로 내려온 그는 뜻밖에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루터백사장에 나와계신다는것이였다.

（아니, 장군님께서？！…）

그는 믿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어정쩡해 서있던 로인은 정신이 펄쩍 들었다.

그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 산삼을 캐기 시작하였다. 실뿌리 하나 다칠세라 정성을 다해 조심조심 흙을 파헤쳤다. 산삼은 팔뚝같이 크고 실하였다.

로인은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솜같이 부드러운 푸른 바위이끼에 산삼을 정히 싸안고 나루터로 달려갔다.

해수욕을 하던 한 사람이 로인을 보고 무슨 일로 왔는가고 물었다.

《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셨다기에…》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서쪽 외진 곳을 한동안 경건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로인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계십니다.》 하고 잠긴 목소리로 말하였다.

로인은 여전히 놀라운 눈길로 일군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길에는 책망의 빛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이 촌늙은이가 객적은 소릴 한다고 하겠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 동무들은 놀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을 하시게 해서야 되겠수?》

로인은 숨소리가 높아지면서 저도모르게 격해졌다.

그 일군은 노여워하는 로인에게 자기들도 어쩔수없이 그렇게 되였노라고 하면서 변명하듯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금강산일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배편으로 원산쪽을 향해 오시던 도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별나게 경치가 아름답고 알뜰하게 꾸린 백사장을 보시자 그곳 나루터에 배를 정박시키라고 하시였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동안 피로가 겹쌓이신 장군님께서 이 좋은 휴식날에 일광욕이라도 하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던터이라 일군들은 성수가 나서 장군님을 모시고 백사장에 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날씨가 참 좋구만. 이 좋은 날을 그냥 보내서야 되겠소. 나는 아무래도 문건을 처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백사장을 아주 잘 꾸렸는데 동무들은 여기서 일광욕을 하시오. 자주 피부를 태워서 몸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건강해야 혁명사업도 잘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문건들을 펼치기 시작하시였다.

일군들이 주춤거리고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일광욕을 하라고 하시였다. 더우기 일군들은 일광욕을 하는것도 일과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더

는 어쩔수 없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로인은 눈시울을 슴벅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경건히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갈린 목소리로

《임금이 여기에 와서 휴식을 하였다고 하여 예로부터 신로군일백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진정 그 반대로일세!》라고 말하였다.

이때 문건을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누군가를 찾으시다가 응삼로인을 보시고 몸을 일으켜 그를 향해 걸어오시였다.

로인은 황급히 마주 달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일군에게서 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반가와하시면서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한참만에 응삼로인은 정히 안고온 산삼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며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이 산삼을 받아주십시오. 장군님의 건강은 우리 백성들의 소원이고 행복이옵니다.》

《로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젊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산삼은 로인님이 쓰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응삼로인이 올리는 산삼을 받지 않으시였다. 몇번이나 거듭 사양하시던 장군님께서는 로인의 진정을 차마 더는 물리칠수 없으시였던지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럼 로인님, 로인님의 지성이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산삼을 드린 응삼로인의 마음은 무등 기뻤다. 백성의 도리를 조금이나마 지킨것 같았다.

그후 응삼로인은 늘 그때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백사장을 더 잘 꾸리였다.

그러던 어느날 응삼로인은 가벼운 병으로 뜻하지 않게 도에 있는 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였다.

그런데 며칠후 군의 책임일군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 일군은 응삼로인앞에 정성껏 포장한 함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보약재입니다.》

응삼로인은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얼마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사장을 꾸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응삼로인이 입원치료를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이 많은 로인에게 산삼과 록용을 다같이 쓰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약재를 보내주셨습니다.》

일군의 말을 듣고 가슴을 들먹거리던 로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백성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신로군일이 거꾸로 되였다. 우리 나라는 신로군일이 거꾸로 된 나라이다.

이때부터 그 백사장을 군로신일백사장 즉 나라님이 수고하고 신하들은 편안하게 휴식하는 백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숭고한 풍모를 우러르며 이 이야기를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고있다.

〔속 담〕

○ 받는 소는 소리치지 않는다.

실지로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렁거리지 않는다는 말.

○ 눈에 익어도 손에 설다.

많이 보아서 쉽게 할수 있을것 같으나 실지 해보면 잘 안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보지만 말고 직접 해보아야 한다는 말.

17. 로당원할아버지

오늘도 5점자랑 기쁨을 안고
뜨락문 열고 집에 들어서면
제일 반가와하는
우리우리 할아버지

가렬한 전쟁의 그날
불비속에 락동강을 건너
원쑤 미제 족쳤대요
고지마다 승리의 기발 날렸대요

재가루만 날리던 전후의 그날엔
한장두장 내화벽돌 모아서
용광로를 쌓고 첫 쇠물 녹였대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큰 기쁨 드렸대요

우리우리 할아버지
로당원할아버지
이제는 환갑나이 지났어도
젊은 나이 그 시절에 산대요

대원수님께 바친 그 충정의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간대요
로당원할아버지 걸어온 그 길로
나도야 큰 걸음 따라갈래요

(김영선)

읽기교재

18. 민 요

베틀노래

하늘중천에 베틀 놓고
구름 잡아 잉아 걸고
대추나무 도리북에
정자나무 바디집에
함경나무 쇠꼬리에
이쁜이가 짝을 잃고
베틀다리 네다리에
안질개는 돋아놓고
서서 짜나 앉어 짜나
소문없이 잘도 짜네
그 베 짜서 뭐할란가
우리 오빠 장가갈제
가마뚜껑 둘러주지
그 남저지 뭐할란가
우리 형님 시집갈 때
가마호랑 둘러주지
그 남저지 뭐할란가
이내 적삼 말랐더니
섶도 없고 깃도 없네
바늘만은 있건마는
실이 없어 못하겠네

농사 (1)

한톨 종자 싹이 터서
만곱장이 열매맺는
신기로운 이 농사는
하늘땅의 조화로세

어화 농사 일군들아
어화 농사 장하도다

농사 (2)

하늘땅의 조화로다
갖은 곡식 다 지어서
천하만민 기르는것
우리들의 일이로세

어화 농사 일군들아
어화 농사 장하도다

농사 (3)

넓은 세상 직업중에
천지자연 동무삼고
힘을 합쳐 하는 일이
농사밖에 어디 있나

어허 농사 일군들아
어허 농사 장하도다

농사 (4)

비바람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기 일을 삼아
농사발전 시켜보세

어허 농사 일군들아
어허 농사 일군들아

읽기교재

19. 행랑자식

어떠한 날 춥고 바람이 불던 겨울밤이였다. 박교장의 집 행랑에서 글읽는 소리가 나더니 꺼져가는 초불처럼 차츰차츰 소리가 가늘어간다. 그러다가는 다시 옆에서 어린애입에 젖꼭지를 물리고서 졸음섞어 꽥 지르는 소리로

《어서 읽어！》 하는 어머니소리에 다시 글소리는 굵어진다.

나이는 열두살, 보통학교 4년급에 다니는 진태라는 아이니 그는 박교장의 집 행랑아범의 아들이다.

왱왱 외우던 글소리는 단 2분이 못되여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는 동리집 시계의 열한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면은 고요해졌다.

이튿날 날이 밝은 뒤에 보니까 온 마당, 지붕, 나무가지에 눈이 함박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다 끝나지 않고 보슬보슬 싸락눈이 내려온다.

진태는 문뒤에 세워놓았던 모지랑비를 들고 나왔다. 처음에는 새로 빨아 펼쳐놓은 하얀 요우에 딩구는것처럼 몸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비자루를 들었으며 모지랑비와 약한 자기 팔로써 능히 그 많은 눈을 쳐버릴줄 알았으나 두어삼태기를 가까스로 퍼버리고나니까 팔이 떨어지는것 같고 허리가 부러지는듯 하였다. 그러나 아니 칠수는 없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것이 자기의 직분이다.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지으러 들어가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인력거를 끌러 나갔다.

진태는 한두삼태기를 개천에 부은 후에 다시 세번째 삼태기를 들고서 낑낑하면서 개천으로 간다. 두손끝은 눈에 녹아서 얼어빠지는듯하고 발끝은 저려서 토막을 내는듯 하다.

그는 발을 억지로 옮겨놓았다. 눈든 삼태기가 자기를 끌고가는듯하다. 그렇게 그가 길중간까지 갔을 때 그의 팔의 힘은 차차 없어지고 다리에 맥이 핵 풀리였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었던 눈삼태기를

탁 놓치였다. 그리자 누구인지

《이걸 좀 봐라.》 하는 어른의 호령소리가 바로 자기 머리우에서 들리였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 교장어른이 아침 일찌기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발등에다가 눈을 하나 잔뜩 덮어씌우고 역증나신 얼굴로 자기를 내려다보고계신다. 진태는 그만 얼굴이 홧홧하여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멀거니 서있었다. 그는 무엇으로 그 미안한것을 풀어야 좋을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하얀 새 버선에 검은 흙이 섞인 눈이 묻어있는것을 보고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털어드리면 얼마간 자기의 죄가 용서되리라 생각하며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그 버선등을 털어드리려 하였다. 그러나 교장은 한발을 탁 구르더니 《그만두어라. 더 더럽는다.》 하고서 《엥》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무참하였다. 손에는 어제 저녁에 습자쓰다가 묻은 먹이 꺼멓게 묻어있다. 털어드리면 잘못을 용서하실줄 알았더니 더 더러워진다 핀잔을 주고 역증을 더 내는것 같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여 그대로 멀거니 서있었다. 무참을 당하여 얼굴도 홧홧하고 두손에서는 불이 난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랑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가 안마루끝에서 주인마님이 《아 그 애녀석도 눈이 없든가? 왜 앞을 보지 못해?》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버리고싶도록 온몸이 움츠러졌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이 망할 녀석, 눈깔은 어따 팔아먹고 다니느냐?》 하며 뒤따라오며 때리려 덤벼드는것 같아서 질겁을 하여 방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나다를가 조금 있더니 어머니가 쫓아나왔다.

《이 망할 녀석, 눈깔이 없니? 나리님 새 버선에다가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질뚱바리냐, 사람의 자식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간이 콩알만 하게 무서운것은 둘째쳐놓고 웬일인지 분한 생각이 났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자기 잘못같지는 않았다.

자기가 눈삼태기를 들고 가는데 교장어른이 딴 생각을 하면서 오시다가 닥달린것이지 자기가 한눈을 팔다가 그러한것은 아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였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호소할데도

없었고 분풀이할 곳도 없었다.

그가 방바닥에 한참 엎드려서 느껴가면서 울고있을 때 방문이 털썩 열리였다.

《애, 일어나거라. 이것아.》 하는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엎드린 속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자기 눈가장자리에는 눈물이 묻었다. 그 눈물을 보면 반드시 그 우는 곡절을 물을터이다. 그 대답을 하면 결국은 벼락이 내릴터이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그의 가슴은 초조하였다.

두발이 성큼 방안으로 들어오는듯 하더니 무쇠갈구리같은 손이 저고리동정을 움켜쥐여 번쩍 쳐들었다. 그는 쇠관에 매달린 소고기모양으로 바짝 들리였다.

《울기는 왜 우니?》 하는 그의 아버지도 자식 우는것을 볼 때 어떻든 그 눈물을 동정하는 감정이 일어나는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또 웃음이 섞이였으니 그것은 그 눈물나는 마음을 위로하려는 본능이다. 그런데 문밖으로 나갔던 아버지가 다시 들어오며 《울긴 왜 울어, 삼태기는 어쨌니? 응 삼태기?》 하며 안팎으로 들락날락한다. 그 서슬에 안마루에 서있던 마님이 미안한 생각이 났던지

《아까 눈인가 무엇인가 친다고 나리님발등에다가 눈을 쏟아뜨렸다네. 그래서 어멈이 말마디나 한것인게지.》 하고 설명한다.

아버지의 생각에는 주인나리의 발등에 눈 얹은것은 오히려 둘째이다.

삼태기 하나 잃어버린것이 자기 자식을 쳐죽이고싶도록 아깝고 분하고 망할 자식이라 생각되였다.

《이놈아, 그래 눈깔이 없어서 나리님버선에다가 눈을 디리부어놓고 또 무엇에 마음이 팔려서 삼태기는 밖에다가 놓아두어 잃어버리게 했니? 응 이 집안망할 자식!》 하고 소리친다.

아버지의 손이 자기 아들 볼기짝, 등어리, 넓적다리 할것없이 때릴 때마다 여린 살에는 푸르게 멍이 들고 피가 맺힌다.

그러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한층 높아지고 떨리고 슬픔과 호소가 엉키였다. 그는 자기 아들을 때릴 때마다 눈앞에서 자기 손에 매달려 애걸하는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고 안방아래목에 앉아있

는 주인나리가 보인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때리는것 같지 않고 자기 주인나리를 욕하고 원망하고 주먹질하고있는듯싶었다.

《이젠 고만 좀 두.》 하며 어머니는 자식을 가로챘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자기 아들을 끼여안았다.

… … …

그날 저녁 날이 어둡고 전기불이 켜졌으나 밥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다. 진태 어머니는 주인집에 상을 차려드리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마님이

《어멈, 오늘 저녁을 하였나?》 하고 묻는다.

어머니는 조금 주저주저하다가

《먹을것 있어요.》 하고서 부끄러운 웃음을 지었다.

마님은 벌써 알아차리고

《그래서 되겠나? 어린것들이 치워서 견디겠나. 자, 이것이나…》 하면서 먹다남은 여러 그릇의 밥을 한데 모은다. 그리고는

《그놈도 들어오라구 그래. 불도 안 땐 모양이지?! 추워서들 견디겠나. 어른은 괜찮겠지만 어린애들이… 어서 그놈도 들어오라구 해.》 하며 어머니를 쳐다본다. 어머니는 다행히 여겨 바깥으로 나오며

《얘 진태야!》 하고 진태를 부른다.

《왜 그러세요.》

《마님이 밥먹으러 들어오라신다.》

진태의 얼굴은 당장에 새빨개지더니

《왜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밥을 지어먹지.》 한다.

《어디 들어오시니.》

《언제든지 들어오시겠지.》

《들어가. 부르시니.》

진태는 《싫어요.》 하고 돌아섰다. 진태의 마음에는 아까 아침에 나리의 버선등을 더럽힌것을 생각하며 마님의 낯을 뵈옵기도 어려웠거니와 아무것도 잘못한것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매를 맞게 한것이 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다가 안방에는 자기와 동갑되는 교장의 딸이 자기와 같은 학교 녀자부에 다니는데 그 계집애 보기에도 의젓하지 못한것 같았다.

《얘 나중에는 별 소리를 다 듣겠네.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는 재촉을 한다.

《어서 들어가.》

진태는 심술궂게

《싫어요. 나는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기는 싫어요.》 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무 말이 없다.

《고만두어라. 너 배고프지 나 배고프겠니?》 하고 어머니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에 추워!》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진태의 아버지이다. 벌이가 없어 빈 손으로 들어온 아버지의 얼굴에는 시장기가 가득히 어리였다.

어머니가 진태를 주려고 국에다 말은 밥을 내놓으니까

《그게 무엇이야?》 하고 아버지는 숟가락으로 둬번 떠먹어보더니

《너 저녁 먹었니?》 하고 진태를 돌아본다. 진태는 말을 할수도 없거니와 그가 말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듯이 흘겨보았다.

… … …

30분쯤 지났다. 문밖에서 어머니가 《진태야! 진태야!》 하고 부른다.

《네.》 하고 진태는 바깥으로 나갔다.

《저》 하고 어머니는 헝겊에 싼것을 풀더니

《이것 가지고 전당국에 가서 70전이나 80전만 달래가지고 싸전에 가 쌀 닷굽과 나무 열냥치만 사가지고 오너라.》 한다.

진태는 얼른 알아채였다. 옳지, 은비녀로구나. 자기 집안에 값진것이라고는 어머니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은비녀 하나하고 굵다란 은가락지뿐이다.

진태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전당국을 향하였다. 사무보는이는 아무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더니 저울에 달아본다. 진태는 속마음으로 만일 저것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쁜것이라고 퇴짜를 하며는 어떻게 하나 하고있을 때 《얼마나 쓰련?》 하고 돈을 묻는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 돈을 말하려다가 자기가 부르는 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도리여 그이더러 《얼마나 나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한참 있더니 《일원이다.》 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얻어오라는것보다는 삼십전이 더하다. 그는 겨우 안심하고 《칠십전 주세

요.》 하였다.

전당표와 돈을 받아들었다. 이제는 싸전으로 갈 차례이다. 석되나 닷되나 한말 쌀을 사는것은 오히려 자랑거리지마는 닷굽을 사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구차한것이 죄악이 아니지마는 진태에게는 죄지은것처럼 부끄럽다. 그는 싸전에 가서 종이봉지에 쌀 닷굽을 싸들었다. 싸전쟁이는 《왜 전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하고 꽥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딴 사람의 쌀을 다 퍼주고야 종이봉지 하나가 아까운듯이 가까스로 닷굽 한되를 퍼주었다.

돈을 주고 나왔다. 쌀든 손은 얼어서 떨어지는듯 하다. 한손으로 귀를 녹이고 또 한손으로는 번갈아가며 쌀봉지를 들었다.

이번에는 나무가게로 갈 차례이다. 나무가게로 갔다. 20전어치를 묶었다. 그것을 새끼에다 질빵을 지어서 둘러메고 쌀은 여전히 옆에다 끼였다. 행길로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어깨가 아프고 손, 발, 귀가 시리여서 잠간 쉬였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을 조금 못 미쳐서 학교선생님 한분이 오신다. 진태는 얼핏 일어났다. 그리고 선생님이 골목까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줄달음질하였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둘러메시였을리가 없으므로 걸음이 속하시였다. 자기는 힘에 닿지 않는것을 둘러메여 걸음이 더디다. 거진 선생님과 맞다들리게 되였다. 그래서 앞도 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여들어가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에크!》 하면서 손에 들었던 쌀이 모두 흩어지고 나무는 어깨에 멘채 나가자빠졌다.

《이 망할 집 자식, 눈깔이 없니?》 하고 들여다보는 그이는 자기 아버지이다. 진태는 그래도 뒤를 돌아다보았다. 벌써 선생님은 본체만체 지나가버리시였다.

《이 망할 자식아, 쌀을 이렇게 흘려서 어떻게 해?》 하며 아버지는 손으로 껌껌한데서 그것을 쓸어서 바지앞에다 담는다.

진태는 멍멍히 서있다가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나 썼으며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다. 진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전당표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처음 진태의 잘못을 가릴 사이가 없었다.

유일한 보물을 전당 잡혀서 사온 쌀까지 땅에다 모두 엎질러버린

것을 생각하니 그대로 있을수 없으리만치 아깝고 분했다. 그래서

《이 망할 녀석, 먹으라는 밥을 먹지 않아서… 밥이나 먹고 자라고 하쟀더니…》 하고서 주먹을 들고 덤벼들며 《어디 좀 맞아보아라!》 하고 또다시 덤벼든다.

진태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에 두번씩 매를 맞게 되니까 그 무엇이 원망스럽고 또 무엇을 저주하고싶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참 얻어맞고 혼자 울었다. 그를 위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쓰다듬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는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한참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에도 억울한 꿈을 꾸었다.

(리도향)

△ 문학작품에서의 묘사

묘사란 그린다는 말이다.

문학작품에서 묘사라 할 때 그것은 언어를 수단으로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과 자연, 주위환경 등을 사실 그대로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보여준다는것이다.

○ 두발이 성큼 방안으로 들어오는듯 하더니 무쇠갈구리같은 손이 저고리동정을 움켜쥐여 번쩍 쳐들었다. 그는 쇠관에 매달린 소고기모양으로 바짝 들리였다.

(단편소설 《행랑자식》에서)

이 문장에는 억울하게 욕을 먹고 방바닥에 누워 울고있던 진태가 아버지의 손에 들리우는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묘사는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글읽는 사람앞에 인물과 사실, 현상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것이다.

묘사에는 인물묘사, 심리묘사, 자연묘사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인물묘사는 인물의 외모와 생김새를 그려보이는것을 말하며 심리묘사는 겉으로 볼수 없는 사람의 속마음을 그려보이는것을 말한다.

자연묘사는 말그대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자연환경을 그려보이는것을 말한다.

20. 모두다 전기를 아껴씁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쓸데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당은 언제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많이 하는것과 함께 절약을 잘해야 합니다.

절약은 어느것이나 다 해야 하지만 특히 전기절약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기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며 심장이기때문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쿵쿵 잘 뛰여 피흐름이 잘되여야 건강해서 활동을 잘할수 있는것처럼 전기가 많고 그것이 제대로 공급되여야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낼수 있고 인민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그처럼 귀중한 전기를 아껴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를 망탕 써서 랑비하면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당해낼수 없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기를 극력 아껴써야 합니다.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이 시각에도 우리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전기문제에 크게 마음을 쓰고계십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기절약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전기는 가정에서도 아껴써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얼핏 보기에 적은것 같지만 전력생산의 7～8％나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가정들에서 전기를 아껴쓰면 나라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들에서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먼저 모든 사람들이 전기절약의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전기절약은 나라와 자기자신을 위한 보람찬 일이며 모두가 자각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혁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서 아글타글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들에서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서는 또한 콤팍트등을 비롯한 전력손실이 적은 전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콤팍트등을 사용하면 백열등에 비하여 전력손실을 5분의 1로 줄일수 있으며 W수가 낮아도 그 밝기를 보장할뿐아니라 사용시간도 6배나 더 깁니다.

이러한 우월성으로 하여 가정들에서 콤팍트등을 사용하면 적은 전기를 쓰면서도 방안을 밝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에서는 될수록 벽을 희게 해야 합니다.

벽이 희면 전등빛은 60％나 되비치지만 벽이 희지 못하면 10％밖에 되비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벽이 희면 방안도 환해지고 전기도 절약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들에서 전기를 아껴쓰자면 또한 다리미나 텔레비죤수상기, 선풍기, 고성기와 같이 전기를 쓰는 물건들을 제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주의로 고성기를 끄지 않고 출근한다면 적어도 8시간은 그것이 빈 방에서 전기를 없애버리면서 소리를 내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25W짜리 전등 한개를 쓸모없이 켜놓은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기를 많이 쓰는 물건들을 규정대로 다루어 전기를 랑비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들에서 전기를 절약하자면 끌으로 전기로 퍼올린 수도물을 아껴써야 합니다.

수도물은 곧 전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흔한것이 물이라고 하면서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아까운줄 모르고 망탕 쓰고있습니다. 이렇게 수도물을 랑비하면 아까운 전기를 수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기절약은 우리 당의 호소이며 우리모두의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한W의 전력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애쓰는것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받드는 길이며 진실로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모두다 전기를 아껴씀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라살림살이에 더 큰 보탬을 줍시다.

〔속 담〕

○ 가마가 많으면 모든것이 헤프다.
일을 여러곳에 벌려놓으면 랑비가 많다는 말.

○ 최후에 웃는자라야만 참으로 잘 웃는자이다.
무슨 일이든 마지막결속을 잘 지어야 한다는 말.

21.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 집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훈체육인증서와 인민체육인증서도 있습니다.

평범한 로동자의 딸인 제가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처럼 과분한 영예를 지닌것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누구보다 체조선수들을 부러워했고 나도 크면 그들처럼 체조선수가 될수 있을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시절에는 그네를 탈 때도 누구보다 높이 날아올랐고 움직이는 그네우에서도 몸을 돌리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니는 떨어질라, 다리를 상할라 하며 걱정을 하군 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재미나서 그네우에서 요술을 피우군 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유치원시절의 그네뛰기를 잊을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기계체조선수들에 대해 남다른 호기심을 가진것은 중학교 기계체조소조에 다니는 우리 옆집언니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언니는 학교체육소조에서 훈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에게 준비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주군 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집에서 거꾸로 서보기도 하고 머리를 잔뜩 뒤로 젖혀보기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웃기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미, 이런 호기심만 가지고는 이름있는 기계체조선수로 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저의 자그마한 소질과 재능을 헤아려보시고 평양시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저는 크나큰 희망을 안고 보람찬 선수생활의 첫발자국을 떼였습니다.

체육선수가 되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도 세계적인 강자가 되려는 결심을 안고 첫날부터 훈련에 열중하였습니다.

훈련의 나날 고저평행봉에서, 평형대에서 그리고 조마에서 떨어져 이마에 혹이 나온적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아슬아슬한 동작들을 수행하다가 떨어지면 맥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훈련과 경기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나 훈련을 계속하군 하였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린 보람은 곧 경기들에서 나타나게 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보천보홰불상소년급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0.01이라는 점수차이로 아쉽게도 2등을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백두산상경기대회, 만경대상경기대회,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련전련승하였습니다.

또한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강자대회 그리고 특히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의 하늘에 우리 공화국기발을 휘날렸으며 수많은 메달을 따왔습니다.

저는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온 다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고 양력설에는 **김일성**대원수님께 저의 기계체조를 보여드리던 일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사실 새해 설맞이공연을 앞둔 저의 마음은 몹시 떨렸습니다. 세계강자들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던 저의 심장이 후둑후둑 뛰는것은 웬일이였던지…

그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앞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나오시자 저의 몸은 하늘을 날듯 가벼워지고 떨리던 마음은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자애로운 품에 꼭 안아주실 때 세상의 행

복이란 행복이 통채로 저에게 모여온것만 같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제가 출연한 종목을 보시고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고 장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세상에는 체육인들이 수없이 많지만 저처럼 행복한 체육인은 없을것입니다.

저는 이 영예, 이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체조선의 체육인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국제경기마다에서 금메달을 수많이 쟁취하며 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휘날리겠습니다.

△ 수기

수기란 자기가 지난날에 체험한 의의깊은 생활이나 그에 대한 느낌과 생각, 결의를 쓰는 글이다.

수기는 느낀 점을 쓴다는 점에서 수필과 비슷하다. 그러나 수필은 자기가 체험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사실들에서 받은 생각과 느낌을 쓰는데 기본을 둔다. 수기는 이와는 달리 체험한 사실이나 이야기가 기본으로 되며 거기에 느낌과 생각을 결부시켜 쓴다.

수기를 쓰자면 무엇보다 자기가 겪은 생활가운데서 가장 의의있고 보람찼던 사실들을 골라야 한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조리있게 펴나가야 한다.

첫머리에 수기를 쓰게 된 동기를 쓰고 기본내용에서는 자기가 겪은 일이 있은 때와 장소, 그때의 환경, 사실, 사건을 순차적으로 쓴다. 사실, 사건은 꼭 필요한것만을 골라써야 하며 느낌을 결부시켜야 한다.

맺는말에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결의나 호소적감정을 쓴다.

수기는 생활에서 쓰는 입말을 감동깊이 써야 한다.

읽기교재

22. 날이 밝는다

백두산 아름드리 원시림을 찍어서
벽이며 지붕이며 쌓아올린 귀틀집
등잔불 깜빡이는 나직한 방에서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

밤은 무척 깊었으리…
울부짖던 눈보라도 뜸해지고
승냥이울음소리도 잠잠해지고
태고연한 침묵만이 밀림속에 흐르는데

밤은 무척 깊었으리…
난로우에 끓던 더운물도 잦아들고
등불에 흔들리는 그이의 모습 비끼인
창가에는 허옇게 성에가 불리는데

깊디깊은 사색의 심연에서 깨여나신
그이의 손은 조용히 움직이신다
연필을 달리시여 물결을 일으키는
통나무책상우에 한장의 지도여

얼음을 깨물며 가야 할 행군
첩첩히 다가서는 준령도 많아라
그러나 기어이 그것들을 넘어서야
조국으로 개선할 승리의 길—

간고한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 위대한 구상을 하신다
오, 이밤 채찍에 쓰러지는
동포들의 신음소리 귀전에 들으시며…

그이께서는 지그시 연필에 힘을 주시여
원쑤들의 진지에 화살표를 집중하신다
— 가자, 어서 대오를 이끌고
— 가자, 튼튼히 무장을 갖추고

이렇게 깊어간 백두의 밤이
몇밤이나 되던가, 몇천밤이나 되던가
등에 걸치신 외투깃을 추켜올리시며
장군님께서 밀영의 창문을 여실 때

아, 날이 밝는다
백두산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정서촌)

읽기교재

23. 설 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쌍가매는 소리없이 피눈물을 삼키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고 문풍지는 몸부림치며 흐느끼였습니다.

밖에서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랗게 얼굴이 질린 쌍가매는 속이 떨렸습니다. 못 들은척 맥을 놓고 등잔불만 쳐다보는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이 해쓱해졌습니다. 파래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무시나?…》

부드럽고 인정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쌍가매에게는 너무도 귀익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쌍가매는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쌍가매야… 어머니 계시냐?》

강반석어머님이시였습니다.

쌍가매는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쌍가매 어머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서성거리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이 깊은 밤 몸소 찾아주실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병환에 계신단 말을 듣고도…》

쌍가매 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오신듯 너무도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쌍가매는 정성스레 강반석어머님의 신에 묻은 눈을 털었습니다. 쌍가매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의지가지없는 쌍가매네를 가엾이 여기시여 그 먼곳에서 찾아주시였습니다.

앞이 캄캄해 맥놓고 앉은 쌍가매 어머니를 생각하시여 손수 뒤일을 맡아 돌봐주시였습니다. 야학을 돌봐주시러 오시여서나 부녀회를 지도하시러 오실 때에도 공부 잘하라고 쌍가매에게 흰종이로 공책을 곱게 매여도 주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손질해주지 못하는 쌍가매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시고 댕기도 드려주군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강반석어머님께서 병으로 누워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쌍가매 어머니와 쌍가매는 여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이라도 찾아뵈옵는다고 별러왔습니다. 그러나 쪼들리는 살림에 손에 든게 없어 끝내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손수 낳으신 흰 무명으로 옷을 단정하게 지어입으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한눈에도 알리게 수척하시였고 병색이 깊으시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와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웃음이 어리여있었습니다.

《부녀회와 야학에 볼 일도 있어 왔다가 들린다는게 이렇게 늦었네.…》

강반석어머님의 신이 얼가봐 방안문목에 가지런히 들여놓은 쌍가매는 옷깃을 여미였습니다. 그리고 강반석어머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원 착하기도, 벌써 세배냐. 하긴 이젠 날이 새나보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웃으시는 눈길로 쌍가매를 어루만져주시며 흰 보자기를 펼치시였습니다. 보자기에는 어머님의 정성이 깃든 솜옷 한벌과 고운 버선 그리고 자그마한 녀자고무신이 놓여있었습니다.

《바위녀석은 자누만… 제 아버지잠뱅이를 걸치고 나와 떠는걸 볼 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더니… 어디 맞겠는지 모르겠다.… 쌍가매야, 이리 온…》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쌍가매의 손을 잡으시였습니다. 솜옷은 바위것이고 버선과 고무신은 쌍가매에게 주려고 가져온것이였습니다.

쌍가매의 갸름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쌍가매는 어지러운 발을 보이지 않으려고 누덕누덕 기운 몽당치마자락으로 꼼지락꼼지락 발을 감쌌습니다.

《원,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다 일제놈들때문이다. 어서…》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웃으시였습니다.

쌍가매는 다소곳이 숙인 머리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

니다. 확확 숨이 막히였습니다. 쌍가매는 뜨거운 손이 자기의 발에 닿는 순간 몸이 후더워짐을 느끼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퍼렇게 얼고 험상스럽게 터진 자그마한 발을 조심스레 어루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있었습니다.

《벌써 온다면서… 내 이래서 야학에 못 나오는줄 알았다. …무척 아팠겠구나.…》

가슴아파하시는 강반석어머님의 나직하고도 부드러우신 말씀은 축축히 젖어있었습니다.

쌍가매를 무릎에 앉히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손수 버선을 신겨주시였습니다. 발끝을 내려다보는 쌍가매는 갸쑴하고 코끝이 뾰족한 버선이 얼마나 고운지 몰랐습니다. 눈같이 흰 버선에 까만 고무신까지 받쳐신고보니 꿈같기만 하였습니다. 쌍가매는 저도모르게 강반석어머님의 품에 안겨 사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포근하고도 따스한 어머님의 사랑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쌍가매는 가슴이 찡하며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받쳐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줄줄이 볼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쌍가매 어머니의 그늘졌던 얼굴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쌍가매는 강반석어머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쌍가매는 달리는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지 몰랐습니다. 저녁때 야학에 가자고 찾아온 동무들의 새신을 보고도 아버지가 삼아주던 짚신을 생각하던 쌍가매였습니다. 바라도 쓸데없는줄 알면서도 바라는 마음을 어쩔수 없어하던 쌍가매였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도 정주사 마름놈이 왔다간 뒤로는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아버지가 계실 때도 엄두를 못 내던 곱고고운 고무신을 손수 신겨주시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쌍가매의 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였습니다. 들먹이는 쌍가매의 자그마한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주시며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습니다. 어찌 낳아준 부모님만 부모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병이 깊으신 몸으로 설한풍 몰아치는 겨울 강얼음을 까시고 삯빨래로 한푼두푼 모아 남의 자식의 설빔을 해줄 어머님

이 이 험악한 하늘아래 그 어디에 다시 있겠습니까. 음식도 들지 못하시는 중병에 계시는 몸으로 남의 자식을 위해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실 어머님이 이 험악한 땅우에 그 어디 또 있겠습니까！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쌍가매의 자그마한 손을 꽉 쥐여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울지 말아… 제 나라, 제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 너뿐이겠니. 기둥같이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를 일제놈들에게 빼앗긴 아이가 너뿐이겠니. 울기만 해서는 원쑤를 갚지 못해.…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만큼 더 많이 배우고 힘을 길러야 한다. 울기만 하면 빼앗긴 우리 나라는 누가 찾고 아버지 원쑤는 누가 갚겠니.… 쌍가매랑, 바위랑 너희들이 해야 할게 아니냐.》

말씀은 조용하나 그 마디마디는 쌍가매의 멍든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안겨주었습니다.

《…선생님께 말했으니 바위를 데리고 야학에 가도 일없다. 그럴수록 더 많이 배우고 조직에도 들어라. 가는 나무가지 한가치씩은 꺾을수 있지만 여러대를 합쳐놓으면 꺾지 못하는 법이야.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일제놈들도 정주사놈따위도 무서울게 없다.》

쌍가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병든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자기네를 위하시는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알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주사놈에게 끌려가야 하지 않는가. 그놈의 토담안에 갇히여 소나 말처럼 일하면서 어떻게 야학에 갈수 있단 말인가. 쌍가매는 강반석어머님의 높은 뜻을 조금이나마 따르지 못하게 될 자기의 안타까움을 강반석어머님께만은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쌍가매는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보내재도 늦었나봐요.》

쌍가매 어머니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정주사놈때문에… 걱정할게 없네. 나도 오다가 그 소릴 듣고 그놈을 만나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았다우. 약값을 다 받아먹고도 무슨 리자냐. 업수이 보고 그러는것이지.… 다시는 얼씬하지 못할거네. 그랬단 마을녀인들과 젊은이들도 가만두지 않을테니까.》

《…？！》

쌍가매와 쌍가매 어머니는 무엇이라 말할수 없었습니다. 사리를 대낮갈이 밝히시는 강반석어머님앞에 기가 꺾인 정주사놈의 꼴이 보이는것만 같았습니다. 언제인가 여우같은 정주사놈이 야학방에 달려들어 농사군이 글을 배우면 밥이 나온다더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강반석어머님께서 오시여 《제 배를 불리자고 배우는 글이 무슨 글이겠는가. 우리는 나라를 찾자고 글을 배운다. 정주사도 조선사람이라면 나라 찾을 생각을 해야 할게 아니냐.》고 엄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의 높은 뜻과 인품에 눌린 정주사놈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밝은 해빛에 자취를 감추는 어둠과 같이 강반석어머님께서 마을에 오시면 정주사놈은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가난하고 어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부드러우시지만 일제놈들에게 붙어사는 지주놈들에게는 서리같이 찬 강반석어머님이시였습니다. 그러하신 어머님께서 병이 깊으신 몸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그 먼길을 찾아주신것만도 고마운데 몸소 정주사놈을 무릎꿇게 하시고 자기를 구원해주시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쌍가매의 어린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강반석어머님의 손을 잡은 쌍가매 어머니도 조용히 어깨를 들먹이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어머님의 손을 적시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정말 쌍가매 어머니는 머리칼을 베여 신이라도 삼아드리고싶었습니다. 아니 신을 삼아드린다고 하여도 그 은혜에 보답할것 같지 않았습니다.

《은혜라니, 그게 어디 내 혼자 힘인가.… 그놈이 무서워하는건 뭉친 조직의 힘일세.… 쌍가매 어머니, 힘들더라도 부녀회에 나오라구. 서로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네.… 우리 귀한 아들딸들을 참되게 길러서 나라에 바치자구. 그게 조선사람된 도리고 어머니된 도리라네.…》

쌍가매는 마음속으로 《어머님!》 하고 강반석어머님을 불렀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웃음을 담으시고 쌍가매의 머리를 사랑스레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쌍가매야, 이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으면 너희들도 마음놓고 공부하게 될게다.… 그날을 위해 너희들도 싸워야 한다.…》

물기어린 쌍가매의 까만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멀리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날입니다. 함박눈이 내립니다. 숫눈길우에는 강반석어머님께서 남기고 가신 발자국이 뚜렷하였습니다. 그우에 햇솜같이 깨끗하고 정성스런 눈송이들이 어머님의 발자국을 고이 간직하려는듯 소리없이 내리였습니다. 쌍가매는 저도모르게 그 발자국을 따랐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바위도 뒤따랐습니다.



눈송이들은 춤을 추며 내렸습니다.

훤하게 밝아오는 등너머 저 멀리 숫눈길우에 어머님께서 밟고 가신 자국을 따라 쌍가매와 바위는 활개치며 걸어갑니다.

(김용권)

△ 문학작품의 언어

언어는 문학작품에서 생활을 그려내는 기본수단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옷이 날개라면 언어는 형상의 옷이라고 할수 있다.

문학작품의 언어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것처럼 생동하게 보여주는 특성을 가진다.

○ 밖에서는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고 문풍지는 몸부림치며 흐느끼였습니다.

(단편소설 《설날》에서)

이 문장은 추운 겨울날씨를 묘사한것이다.

작가는 추운 날씨라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보라가 《울부짖고》 문풍지는 《몸부림치며 흐느끼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문학작품의 언어는 이렇게 현실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읽기교재

24.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

이 혁명가극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원작 그대로 옮긴 혁명가극 《피바다》에 기준한것이다.

나오는 사람들

어머니: 후에 부녀회장
갑순: 그의 딸
을남: 그의 작은아들
조동춘: 항일유격대 정치공작원
별제로인

영실: 마을처녀
청년무장대장
광산로동자
칠성 어머니: 후에 부녀회원
수비대 오장
기타: 마을사람들, 왜병들

第 6 장

때: 가을
곳: 갑순이네 집

—막이 열리면—

△ 갑순 밖에서 《을남아, 을남아!》 애타게 부르며 들어온다.

어머니: (방문을 열고) 을남아! 을남아!

갑순: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데 너무 근심마세요. 제가 을남이를 찾아오겠어요.

△ 어머니 방문을 닫는다.

갑순: 사랑하는 을남이는 어데로 갔나
이른아침 집을 나가 어데로 갔나
앓고계신 어머니가 근심하는데
철없이 어델 가서 오지 않느냐

약 한첩 미음 한술 대접 못하니
내 마음은 한없이 괴로웁구나
앓고계신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을남이는 어델 가서 오지 않느냐

△ 영실 들어온다.

영실: 갑순아, 을남이를 아직도 찾지 못했니?

갑순: 찾지 못했어.

△ 갑순, 영실 《을남아, 을남아！》 찾으며 나간다.

△ 을남 노래부르며 들어온다. 허리에는 다래끼를 차고 손에는 고기잡이그물을 들었다.

을남: 기럭기럭 기러기야 훨훨 날으는 저 기럭아
너 혼자 가지 말고 우리모두 함께 가자

기럭기럭 기러기야 훨훨 날으는 저 기럭아
우리 엄마 우리 누나 모두 함께 날아가자

△ 갑순 들어와 을남을 본다.

갑순: 을남아！

을남: (누나를 보고 반기며) 누나！

갑순: 너 어디 갔댔니！ 쪼끄만게 어딜 돌아다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머니가 걱정하시는데 어머니 병이 더하시면 좋겠니？ 좋겠어？

△ 어머니 방문을 열고 내다본다.

을남: 물고기 잡아다 팔아서 어머니 약을 사왔어.

갑순: 약을？ 을남아！ 누나가 몰랐구나.

사랑하는 을남아 나의 동생아
너를 업고 울던 일 어제같구나
어느새에 자라서 기특하게도
어머니를 위하여 약을 사왔나

내 가서 약탕관을 가져올게.

△ 갑순 나간다.

△ 어머니 방에서 나와 퇴마루에 앉는다.

어머니: 을남아！

을남: 어머니！ (달려가 어머니품에 안긴다.)

어머니: 귀여워라 내 아들아 네 마음 기특해
약보다도 네 정성에 내 병은 나으리라

왜놈들을 쳐부시고 내 나라를 다시 찾으면
고생많던 지난날을 옛말로 이야기하자

△ 요란한 총소리! 조동춘 다리를 절며 급히 들어선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동춘: 급한 련락을 오던 길에 놈들과 부딪쳤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폭동은 래일로 결정되였습니다. 유격대의 공격시간은 4시인데 그전에 꼭 성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 이때 적들이 포위해 들어온다.

△ 조동춘 맞받아나가려 한다.

어머니: 안됩니다.

△ 조동춘 정신을 잃는다.

△ 어머니 조동춘을 부축하여 집뒤에 숨기고 나온다.

△ 적들이 들이닥친다.

△ 왜병들 집을 수색하고 없다고 보고한다.

오장: 없다?… (어머니에게) 누가 왔지?

어머니: 난 모른다.

오장: (을남이에게 다가서며) 공산군이 왔지?

을남: 난 몰라요.

오장: 갖다세워!

△ 왜병들 을남이를 나무앞에 끌어다세운다.

오장: (어머니를 보며) 아들을 죽일테냐, 공산군을 내놓을테냐?

어머니: …

오장: (을남에게) 공산군이 왔지?
말하면 살려준다. 공산군이 왔지?

어머니: 을남아!

△ 오장 권총으로 을남을 쏘려고 한다.

△ 조동춘 나오면서 적들을 쏘아눕힌다.

조동춘: 어머니, 적을 유도하겠으니 조직에 빨리 련락을 취해주십시오.

△ 조동춘 원쑤들을 용감히 쓸어눕히며 나간다. 그러다가 총에 맞는다.

을남: 아저씨! (달려간다.)

△ 쓰러졌던 오장놈 을남이를 쏜다.

을남: (쓰러지면서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을남아!

△ 갑순 달려들어온다.

갑순: 어머니, 어머니!

△ 갑순 쓰러진 을남을 본다.

갑순: 을남아, 정신차려라, 누나가 왔어. 한번만이라도 눈을 떠보렴. 을남아! (통곡한다.)

△ 어머니 을남이를 안고 통곡한다.

△ 비장한 무가사방창이 흐른다.

갑순: 설한풍 스산한 원한의 피바다야
참혹한 주검이 묻노니 얼마냐
혁명에 피흘린자 그 얼마에 달하였나

△ 마을사람들 모여든다.

합창: 죽은자 가족의 비참한 그 모습과
기막힌 원통에 가슴이 터진다
사무친 이 원한을 천만추에 못 잊으리

△ 청년무장대장 급히 들어온다.

청년무장대장: 여러분, 왜놈들이 옵니다.

△ 요란한 총소리, 말발굽소리, 마을에 불길이 타오른다.

△ 방창과 함께 무대 바뀌여 마을은 피바다에 잠긴다.

방창: 락심을 말아라 전세계 무산자야
혁명자 하나의 죽음의 피값에
16억 7천만의 무산정권 수립된다

△ 귀축같은 야수놈들 마을을 토벌한다.

△ 악귀같은 왜병놈들 사람들을 살륙한다.

△ 왜병놈들 총질을 하고 칼부림을 하면서 야수같이 돌아친다.

△ 사람들은 도끼와 쇠스랑, 몽둥이를 들고 왜놈들과 싸운다.

△ 낫을 높이 든 건장한 사나이 왜놈을 찍어넘긴다.

△ 한 어머니 총칼에 찔리우고 어린애도 칼에 맞아 쓰러진다.

△ 별제로인 도끼를 들고 왜놈을 찍어넘기다가 총에 맞아 쓰러진다.

△ 어머니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피바다속을 걸어온다.

△ 이때 부녀회원들과 폭동군중이 들어온다.

칠성 어머니: 부녀회장동무, 주변농촌들에서 폭동준비를 다하고 지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광산로동자: 우리 광산마을에서도 폭동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청년무장대장: 청년무장대는 《자위단》본부를 치고 성시로 떠나갈 준비가 다되였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유격대의 공격시간은 4시입니다. 주변농촌과 광산, 성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유격대공격에 합세합시다. 철천지원쑤를 안팎에서 족치고 가슴속에 사무친 원한을 풉시다.

△ 폭동군중들 호응한다.

어머니: 판가리싸움에 일어나라
침략자 일제를 쳐부시자
혁명의 붉은기 들고서
최후의 결전에 나가자

합창: 동무여 싸우자 우리의 불타는 가슴
복수의 복수의 피가 끓는다 피가 끓는다



정의의 싸움에 일어나라
철천지원쑤를 쳐부시자
혁명의 붉은기 들고서
판가리싸움에 나가자
동무여 싸우자 우리의 불타는 가슴
복수의 복수의 피가 끓는다 피가 끓는다

△ 모두 합창을 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중간막이 내린다.

△ 막앞으로 농민군중, 로동자군중, 청년무장대, 시민군중들이 노래하며 지나간다.

— 막 —

읽기교재

25. 까치와 여우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이다.)

머나먼 옛날 새들이 사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들이 곱게 피여나고 가을이면 황금열매들이 주렁져 언제나 향기가 그윽히 넘쳐나는 동산이였습니다.

까치, 꾀꼴새, 꿩, 숲할미새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서로서로 고운 목청으로 멋진 노래가락을 뽑아대기도 하고 깃을 치며 하늘높이 날아오르기도 하면서 숲도 가꾸고 새끼도 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피여나고 기쁨이 넘치던 행복한 새동산에는 크나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마음착한 꿩네 집에 악독하기 그지없는 여우가 달려든것이였습니다.

어미꿩은 겨우 살아났으나 사흘만 있으면 귀여운 새끼들이 까나올 꿩알을 여우에게 몽땅 빼앗기고말았습니다. 어미꿩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온 동산에 울려퍼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

새동산은 일시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울리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들은 모두 꿩네 집앞에 높이 솟아있는 백년묵은 큰 소나무가지에 모여앉았습니다.

찌꼴새도 오고 숲할미새도 오고 까치도 오고 클락새, 개구마리, 나무발바리, 낭비둘기, 부비새, 지어는 부엉이, 올빼미, 외쏙도기 같은 밤새들까지도 낮새들의 길안내를 받으며 찾아왔습니다.

새들은 여우를 쳐없애기 위한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찌꼴새가 먼저 둥지를 땅우에다 틀지 말고 제 몸무게나 겨우 견디여낼수 있는 나무우듬지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지으면 여우가 달려들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찌꼴새의 말을 찬성해나서는 새는 그리 많지 못하였습니다.

둥지를 땅우에 틀고사는 부비새나 종달새는 도리머리질을 하였고 나무가지에 둥지를 트는 까치나 숲할미새나 어치도 어떻게 나무꼭대기에 공중다락을 짓겠느냐고 하면서 반대해나섰습니다.

그 바람에 소나무가지가 다 흔들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모자를 쓴 딱따구리가 조용하라는듯 똑똑 나무를 쫏더니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모든 새들이 나무구멍을 깊이 파고 그안에 둥지를 틀면 여우가 달려들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딱따구리의 말에 나무발바리가 찬성해나섰습니다.

나무발바리는 딱따구리처럼 길고 좁은 부리를 가지고 나무를 쫏는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새들은 딱따구리의 말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낭비둘기가 나서서 자기처럼 벼랑이나 바위굴속에 둥지를 틀면 여우의 습격을 막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들은 낭비둘기의 말도 마음에 들지 않아 잠잠해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로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아 머리만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여우는 또 새동산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깔나무밭에 둥지를 틀고사는 메추리네 집을 습격하여 갓 까난 새끼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미메추리의 울음소리가 또 숲속을 울려 여러 새들의 가슴을 저

미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새들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할뿐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새들은 하루도 번지지 않고 날만 밝으면 큰 소나무가지에 모여앉아 의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여우가 새동산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새동산의 크고작은 모든 새들에게 알리노라.

나는 힘으로 보나 식성으로 보나 동산의 모든 새들을 다 잡아먹어도 성차지 않노라.

허나 가련한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 모든 욕망을 누르고 알리노니 그저 입맛이나 돋굴 정도로 매일 알을 열알씩 바칠것을 통고한다. 만약 이것을 하루라도 어기였을 때에는 새동산을 짓뭉개버릴것이며 너희들을 씨종자도 남기지 않을것이다.

날개가진 새와 네발짐승들의 왕 여우로부터.》

찌꼴새가 여러 새들앞에서 그 편지를 큰소리로 읽었습니다.

클락새는 제가 왕이라고 거들거리며 쓴 여우의 편지내용을 듣자 깃을 세차게 화드득 치고나서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뭐라구? 알을 내라구? 천하에 악독한 놈!… 절대로, 절대로 그럴수 없어. 우린 여우놈이 기여들지 못하게 맞서싸워야 해.》

새들은 클락새의 말에 모두 찬성해나섰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새들이 성이 나서 웃웃하였습니다.

그런데 까치만은 목을 움츠리고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공연히 여우의 비위를 거슬려놓지 말고 모두 피해서 동산을 떠나 숨어살자고 하였습니다. 보잘것 없는 새들의 힘을 아무리 합쳐야 여우와 싸워이길수 없다는것이였습니다.

숲할미새를 비롯한 모든 새들이 어떻게 옛날부터 살아온 정든 동산을 떠나겠느냐고 반대했으나 겁많은 까치는 슬그머니 새동산을 떠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다녀봐야 제가 살던 새동산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하는수없이 집마을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 이깔나무 맨 웃초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기에 온 뒤 여우놈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까치는 동산의 새들을 비웃었습니다.

까치는 다문다문 까만 점이 박힌 반들거리는 알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스무날만 있으면 태여날 새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마음은 그저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빨리 흘러갔습니다. 이제 엿새만 있으면 새끼들이 알에서 까나올 날이였습니다. 그날도 까치는 둥지에서 알을 품은채 행복한 꿈을 안고 눈을 스르르 감았다가 무심결에 땅을 굽어보았습니다.

까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던지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여우가 찾아온것이였습니다.

까치는 여우를 보자 목을 움츠러뜨리고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까치가 겁이 많다는것을 알고있는 여우는 동산을 떠나 혼자 사는 그의 처지를 동정하는척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동산에서 매일 알을 열알씩 받았는데 오늘은 동산의 새들이 까치는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까치한테서 받으라고 하기에 힘들게 찾아왔노라고 하였습니다.

《까치야, 난 너한테서 알을 많이 달래지 않겠어. 그저 더두 말구 한알만 주렴. 그럼 난 물러가겠어.》

여우는 제법 너스레를 떨면서 넓은 나무잎으로 만든 부채를 슬슬 부쳤습니다.

까치는 여우에게서 다시 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품고있던 알 하나를 꺼내여 여우에게 내려보내주었습니다. 여우는 그것을 받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여우는 또다시 까치를 찾아왔습니다.

《까치야, 아무래도 너한테서 알을 하나만 더 가져가야겠구나.》

《아니, 어제 알을 더 달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불쌍한 너를 생각해서 딱 한알만 가져가려 했댔는데 다른 새들이 자기들한테서는 열알씩 가져가면서 왜 너한테서는 한알밖에 가져가지 않는가고 막 야단이야.》

까치는 여우에게 알을 더 주고싶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나머지 다섯알마저 떼울것 같아서 또 한알을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여우가 또 까치를 찾아왔습니다.

여우에게 알을 준다는것은 제 살을 베주는것보다 더 가슴아픈 일이였습니다. 까치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여우는 이틀후에 까치둥지아래에 또 나타났습니다.

《마음어진 까치야… 글쎄 내 말 좀 들어봐. 어제 숲할미새가 찾아오지 않았겠니. 뭐 자기 생일에 초청한다나. 그래서 생일잔치에 갔는데 새동산의 새들이 저마다 제 알을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더니 체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용한 의원을 찾아가니 까치알 한알만 먹으면 단번에 낫는다는거야.

이거 정말 안됐구나. 네 알 한알만 더 주렴.》

까치는 새동산의 새들이 막 미워졌습니다. 여우는 허리를 끄부리고 배가 아픈 시늉을 했지만 까치는 알을 더 줄수가 없었습니다.

까치는 겨우 용기를 내여 주저주저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젠 더 주지 못하겠어.》

《지금까지 그래두 난 네 사정을 봐줬는데 넌 내 사정을 영 안 봐주겠다는거야.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 나무에 올라가 내 손으로 알을 꺼내먹는수밖에…》

여우가 위협하자 겁이 난 까치는 눈물을 흘리며 또 한알을 꺼내주었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 두알밖에 안 남았어. 다신 오지 말아. 제발 사정한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여우가 또 까치를 찾아와서 너의 알을 한알 먹었더니 얹혔던것이 쑥 내려갔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한알만 더 먹으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한알만 더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까치는 두알밖에 남지 않은 알을 내려다보니 눈물이 쏟아져나와 차마 알을 주겠다고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여우야, 정말 이젠 더 못 주겠어. 제발 사정 좀 봐주렴.》

그러자 여우는 당장 알을 내놓으라고 을러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서 빨리 내려보내지 못하겠니? 올라가서 네 둥지를 콱 짓뭉개버리고말테다.》

겁많은 까치는 여우가 무서워서 귀여운 새끼가 까나올 알을 한알 또 내려보내주었습니다.

까치는 마지막알을 놓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참으로 처량하였습니다.

어디론가 날아가던 클락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까치를 찾아왔습니다.

까치에게서 사연을 듣고난 클락새는 분을 참지 못하여 말하였습니다.

《뭐? 여우놈이 네 알을 다 빼앗아갔다구? 그놈이 인젠 우리 동산엔 얼씬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한테 와서 그런 못된짓을 했구

나.》

클락새는 여우가 나무에 기여오르지 못한다는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까치는 여우에게 속히운것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할수가 없었습니다.

클락새는 까치를 돕기 위해 동무들을 데리러 곧 떠나갔습니다.

이윽고 여우놈이 까치를 찾아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까치야, 마음좋은 까치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글쎄 네가 준 알을 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그만 바위에 떨구었구나. 네 알 한알마저 주렴.》

여우는 마지막 한알마저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까치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클락새에게서 힘을 얻은 까치는 여우를 쏘아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뭐 알을 마저 달라구? 이 뻔뻔스러운 놈아! 어서 올라올테면 올라오라!》

《뭐뭐 뭐라구? 내 네놈의 둥지를 당장 짓뭉개버리고 네놈까지 잡아먹을테다!》

여우는 당장 나무에 게바라오를듯 밑둥에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반기장쯤 훌쩍 나무에 뛰여오르는것이였습니다.

순간 까치는 가슴이 섬찍하고 떨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클락새가 새동산의 새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새들은 여우를 골려주면서 모두 달려들어 부리로 세차게 쪼아댔습니다.

《아이쿠!》

여우는 대갈통을 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우를 쫓아버린 새들은 좋아서 마음껏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까치만은 웃지 못하고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의 눈물, 자책의 눈물이였습니다.

까치는 그후에도 어리석었던 자신의 지난날이 부끄러워 새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근처에서 나무우듬지에 둥지를 틀고 그냥 살고있다고 합니다.

〔속 담〕

○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듣지 않는다.

①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말.

② 늘 거짓말을 하는자의 말은 어떤 말이나 믿음이 갈수 없다는 말.

○ 불장난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는다.

남에게 해를 주는 나쁜짓을 하는자는 반드시 그 피해를 받아 망하고야만다는 말.

읽기교재

26. 해 돋 이

1

그이께서
세상에 첫 자욱을 찍으신
그 땅은
가장 준엄한 천고의 밀림이였다

그이께서
첫 웃음을 웃으신
그 집은
밀영의 통나무귀틀집이였고

그이께서 바라보신
조국의 첫 모습은
군복에 탄띠를 조여매신
어머님의 존귀하신 영상이였다

아,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백두산에 탄생하시였나니

백두산
거기서 조선의 별이 뜨고
거기서 조선의 행복
조선의 미래가 시작되였다

2

성에 낀 밀영의 창가에
꺼질줄 모르던
백두산의 그 불빛
오늘은 당중앙창가에 빛나고있어라

우등불 타오르는
사령부 천막가에
소리없이 날리던 흰 눈송이
당중앙지붕우에 내리고

아, 강토에 꽃 한송이 피지 않던
엄혹한 그 세월에
조선의 피를 끓게 한
혁명의 장엄한 북소리
오늘은 당중앙에서 울려오고있나니

마치도
그날의 백두산이
그날의 백두산이

여기에 솟아있는듯
그이께서 여기에 옮겨다놓으신듯

3

얼마나 고요한 밤인가
하늘의 은하수도 멀리 기울고
땅우의 불야경을 이루던
그 불빛도 이제는 사라지고

얼마나 깊어가는 밤인가
어데선가 눈가루 날리는 소리
어데선가 마지막렬차 떠나가며
길게 울리는 기적소리…

아, 이밤에도
그이 계시는 방에는
불이 켜있어라
향도의 불빛이！

우리의 소중한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늙으신 로인들이
이밤 편히 잠이 들도록
그 불빛은 밤을 지새우는것인가

백두산 눈우에 찍으신
그이의 첫 발자욱
이밤엔 어느 대지의 언땅을 녹이시는가
어느 바다가의 차거운 조약돌을 밟으시는가

당에는 청춘의 피를 주시며
조국에는 황홀한 미래를 주시며
김일성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그이께서는 백두의 등불을 안으시고
이밤도 걸어가시여라

아, 동트는 새벽
공산주의의 장엄한 해돋이를 향하여!

(정서촌)

〔속 담〕

○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① 말같지 않은 말은 아예 귀담아듣지 말라는 말.
② 원칙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

○ 글속에 글이 있고 말속에 말이 있다.
남의 글이나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이 새겨보고 들어야 한다는 말.

27. 충정의 나날을 더듬으며

기자: 우리 당이 제시한 학습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최우등생학급의 영예를 지닌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동무들의 자랑과 경험을 듣자구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다 최우등생이 된데는 누구보다 분단위원장동무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먼저 분단위원장동무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가요.

분단위원장: 예, 처음에 우리들이 최우등생학급을 만들자고 궐기할 때엔 욕망은 컸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것이 정확히 타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목과 외국어과목에만 힘을 넣고 다른 과목들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어는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은 듣지 않고 수학공식이나 외국어단어들을 외우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분단위원회는 이런 현상을 제때에 포착하고 이 사업이 나라의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갈 산지식을 다지는 일인데 어느 한두과목만 잘해서야 되겠는가구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무들속에서 전과목에 모두 힘을 넣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고 실력이 높아져가는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였습니다.

기자: 분단위원장동무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건 목표를 옳게 정하고 한번 계획된 사업은 끝장을 볼 때까지 힘있게 내미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급장: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 학습방법을 따라배우는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이 과정에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구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서가게 되였습니다.

성희: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학습방법을 따라배우는데서 기본은 45분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입니다.

저는 지난 기간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듣기 위해 애썼으며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반드시 그 시간에 알고 넘어가는 기풍을 세워나갔습니다.

영철: 제가 바로 공부시간에 수학공식만 외우군 하던 김영철입니다. 앞으로 수학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다른 과목에는 아예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이 제때에 일깨워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전 아마 절름발이처럼 되고말았을것입니다.

분이: 영철동무의 경우이자 저의 경우입니다.

저두 한때 외국어대학에 간다고 하면서 다른 과목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댔습니다.

기자: 지난 생활에 대한 비판이자 경험이구만요. 정말 실감이 있는 이야기들이예요.

외국어학습은 품이 많이 든다던데 이번에 그 경험을 좀 들어볼가요.

분단위원장: 외국어에서는 영수동무가 제일이라구 생각합니다. 영수동문 회화도 능숙하게 한답니다.

영수: 저는 그저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 외국어는 눈에 익히구 입에 올리구 손에 익숙시키는것을 부단히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학습은 품이 많이 든다는 말도 나왔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우정 시간을 내지 않구 할수 있는 공부가 외국어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무들과 학교로 오가면서 단어도 외우구 회화도 련습하였

습니다.

기자: 벌써 회화까지 자유롭게 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학급장: 최우등의 비결은 책을 많이 읽는데도 있다구 생각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지난 전국과학환상그림전시회에서 저의 《만능로보트》가 높이 평가된것두 책읽기를 많이 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이: 제 경험에 의하면 공부를 잘하는데서 복습과 예습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예습은 선생님의 설명을 리해하는데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자: 동무들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오늘과 같은 영광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충분히 리해할수 있구만요.

분단위원장: 우리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청소년시절 학습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최우등생학급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20대, 30대에 박사로 자라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는데 반드시 이바지하겠습니다.

기자: 그럼 더 큰 충정의 선물을 마련하구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것을 약속합시다.

〔속 담〕

○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
결함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아무데 가나 그 결함이 나타난다는 말.

○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① 모든 사물현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
② 십년이란 동안은 강산이 변할만큼 오랜 세월이라는 말.

글짓기교재

28. 영생하는 눈동자

나는 지금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항일혁명투사 최희숙선생님의 반신상앞에 서있다.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최희숙선생님의 맑고 빛나는 눈동자!

나의 눈앞에는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며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운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체30(1941)년 2월 어느날이였다.

최희숙선생님은 자기가 속한 소부대와 함께 조직에서 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선생님은 뜻밖에 원쑤놈들과 맞다들어 그만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놈들에게 붙잡히게 되였다.

일제놈들은 최희숙선생님에게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온갖 고문으로써도 갖은 회유로써도 선생님을 굴복시킬수 없게 된 원쑤놈들은 악에 받쳐 녀투사의 두눈을 빼냈다.

짐승도 낯을 붉힐 몸서리치는 만행이였다.

그러나 최희숙선생님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웠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삼천만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

원쑤놈들에게 두눈을 빼앗겼어도 주저없이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녀투사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오고 그 웨침소리는 나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며 들려오는듯싶었다.



정녕 무슨 힘이 있었기에 선생님은 그렇듯 원쑤놈들이 무서워 벌벌 떨게 하는 심장의 웨침소리를 터칠수 있었던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 바로 그것을 지녔기에 항일의 녀투사는 원쑤놈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웃으며 떳떳이 최후를 마쳤던것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불보다 더 뜨겁고 강철보다 더 굳세다.

바로 이런 철의 신념을 지니였기에 항일선렬들은 단두대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안녕과 우리 혁명을 끝까지 지켜낼수 있었다.

원쑤놈들의 악착한 고문에 정신을 잃고 비밀을 루설할가봐 자기 혀를 끊은 마동희선생님, 사형장에서도 해방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동이 튼다.》고 웨친 리제순선생님!

불굴의 신념을 지닌 항일아동단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영생의 꽃으로 빛나는 김금순, 리화순언니들…

어찌 그뿐이랴!

준엄한 전화의 나날 미제승냥이놈들에게 붙잡혔어도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부르며 혁명의 절개를 지킨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할아버지가 34년간이나 원쑤놈들의 철창속에서 별의별 고문을 다 받으면서도 혁명의 지조를 지켜내고 공화국의 품에 다시 돌아온것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몸은 비록 쓰러져도 혁명의 절개를 지켜내고 죽어서도 영생하는것이다.

허나 제 한몸이 아까와 신념을 저버린 사람은 배신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것이다.

끝없이 깊어지는 생각속에 나는 다시 최희숙선생님의 반신상을 우러렀다.

영생하는 눈동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념을 지녔기에 최희숙선생님의 두눈은 비록 원쑤놈들에게 빼앗겼어도 오늘 이 높은 언덕에서 광명을 되찾은것이며 조국을 지키는 눈동자로 영생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받드는 충정의 한길에서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 우리의 혁명선배들인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넋을 이어가는것은 우리 새 세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오늘도 우리들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소년근위대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녀투사의 영생하는 눈동자를 우리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살리라.

나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최희숙선생님의 반신상을 떠났다.

△ 수필

수필이란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이야기형식으로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수필은 이야기식으로 씌여지지만 시처럼 서정성이 강하다. 그래서 수필을 산문시라고도 한다. 수필의 주인공은 언제나 글쓰는 나자신이 된다.

수필의 첫머리에서는 수필을 쓰게 된 동기, 계기를 쓴다. 수필의 기본내용에서는 체험한 대상을 먼저 소개하고 느낌을 펴나간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디서 보고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식으로 쓰지 말고 자기의 느낌을 잘 펼쳐보이는것이다. 수필의 마감은 자기의 결의나 호소적내용으로 여운있게 끝맺는다.

읽기교재

29. 품

평양은 낮은 낮대로 밝고 명랑하였다면 밤은 밤대로 우아하고 그윽한것이 넘쳐흘러 사람들을 즐겁고 희망찬 래일에로 이끌어간다.

명멸하는 불빛, 큰가 하면 작기도 하고 붉은색, 누런색에 노을빛을 담았는가 하면 칠색무지개가 단아하게 비끼기도 하였다. 거기에 미끄러지듯 소리없이 달리는 승용차의 불빛은 가로세로 엇갈리다가는 련련히 흐르는데 사람들은 그들대로 속삭이며 웃으며 행복의 꽃물결을 이룬다.

누구인들 저 거리를 발목이 시도록, 이밤이 지새도록 걷고싶지 않으랴.

그러나 건축설계가 림의건은 죄스러운 낯빛을 지은채 밤이 깊어가는것도 느끼지 못하며 반백이 넘은 머리를 짓수굿하고 창문가를 넋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자기도 젊음을 되찾기라도 한듯 저 거리를 걸어도 보고 넘쳐나는 싱그러운 향수를 마음껏 들이마셔도 보았을것이다.

하지만 늘 보던 거리(더우기는 자기의 설계가 깃들기까지 한), 언제나 정답던 불빛이 오늘따라 이 눈을 찌르는듯 자극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자식으로서 부모앞에 도리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라고 할가.

가슴은 납덩이가 들어앉은듯 무겁고 답답하기만 하였다.

때마침 뗑— 뗑— 울려퍼지는 시계종소리에 림의건은 눈길을 쳐들었다. 산처럼 느껴지는 인민대학습당의 거대한 지붕이 눈앞을 꽉 채운다.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거대한가, 집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하나의 세계를 방불케 한다. 저 푸른 지붕은 이 세상 어디에 가나 보일것 같고 그 웅글은 시계종소리는 우주의 무변광대한 공간속으로 울려퍼져 천체에까지도 날아갈듯싶다.

그런데 저 거대한 건축물은 어데서 보아도 압박감이나 위축감은

추호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 림의건은 피라미드며 스핑크스를 자랑하는 고대에짚트의 건축술도 가보았고 소소리 높은 종탑을 떠이고 선 유럽의 사원들도 가보았다.

그때 림의건은 경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한듯 한 수치감과 압박감만을 느꼈었다. 예속과 굴종, 위선… 이것이 전부였다. 인간의 피와 땀으로 쌓아졌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주는것은 석재의 싸늘함뿐이였다.

그러나 저 인민대학습당은 바라볼수록 자기자신을 그만큼 크고 위대한 존재로 느끼게 하며 인간의 힘의 무궁무진함에 대하여 사무치게 느끼게 한다.

여기에 우리의 건축, 주체적건축예술의 의미가 있지 않을가. 그렇다. 저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우리 식의 건축예술이다.

림의건은 학생소년궁전형성안설계에서 바로 이것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탓에 광복거리건설로 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지 못했다. 제딴에는 몇달 품을 놓아 만들었다는것이 장군님께 크나큰 심려만을 끼쳐드렸던것이다.

방금전에 있은 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학생소년궁전형성안설계를 오래동안 보아주시였다.

한장 또 한장… 이렇게 두번이나 보시였다.

그때 림의건은 장군님의 안색에서 어린 자식의 서투른 그림에서 잘된것을 찾아주고싶어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안타까와하는 부모의 심정을 읽을수 있었다.

이윽고 설계가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듯 자애로운 시선으로 방안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낮으나 근엄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동무들은 수령님의 이 말씀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닙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고 설계가들을 일별하시였다.

림의건은 물론 모든 설계가들의 머리는 저절로 수그러졌다.

《학생소년궁전은 바로 나라의 왕들이 살 집입니다. 그런데 형성안은 한마디로 말하여 궁전맛이 나지 않습니다. 학생소년궁전은 경쾌한 맛이 아니라 궁전맛이 나게 하여야 합니다.》

궁전맛, 그것이 어떤것인지를 림의건은 잘 안다. 웅장함과 화려함, 지구와 같은 무게… 그에 비하면 형성안은 초라하달만치 작게 형성되였던것이다.

림의건은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의 형성도안에서 눈길을 돌리고말았다.

《동무들은 광복거리에 앉히는 학생소년궁전이라는것으로 하여 거리형성만 하다보니 궁전을 특색있는 건물로 만들지 못한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이시였다. 지금껏 설계가들은 거리에 들어앉게 될 매 건물의 조화와 통일체만을 생각했었다.

학생소년궁전이 지내 두드러지면 그 통일성이 깨뜨려지지 않겠는가.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모순처럼 생각해왔다.

지금까지 인류건축력사도 이렇게 기록되여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백만년 흐르고흘러온 력사의 이 기성관념을 깨버리시는것이 아닌가!

건축에서는 제노라 하는 림의건이였지만 장군님의 예지를 단번에다 받아안기는 어려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답답하신듯 창문가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을 위하여 장대재에 학생소년궁전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때에 학생소년궁전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집이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장대재에 높이 솟아오른 학생소년궁전, 7천세대분의 자재로 2만

세대를 지어야 했던 긴장한 시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쪼개쓰던 어려운 시기… 이 나라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어버이사랑!

림의건인들 어찌 이 모든것을 모르랴.

《지금은 80년대입니다. 우리에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학생소년궁전을 온 세상이 보라는듯 본때있게 지읍시다. 그러자면 학생소년궁전을 광복거리에 어울리게 할 생각만 하지 말고 쭉 뽑아올려야 합니다. 산줄기라면 주봉이 되게 말입니다.》

림의건의 눈앞에는 몇달 밤을 고심하면서도 찾을수 없었던 형성안의 규모가 눈부신 섬광처럼 스쳐지나갔다.

학생소년궁전으로 광복거리가 더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로 되게 하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니시고서야 그 누가 광복거리속에 묻혔던 학생소년궁전을 광복거리우에 솟아오른 건물로 쭉 뽑아올려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보는 림의건의 가슴은 마냥 후더워올랐다.

《학생소년궁전의 형식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의 학생소년궁전은 지금껏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신 수령님의 그 모든 사랑이 형상적으로 집대성되여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상이 반영되자면 수령님과 어린이들의 관계를 잘 알고 설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린이들, 어린이들에 대한 수령님의 바다같은 사랑…

어린이들이 왜 수령님을 아버지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집에는 우리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 시대가 반영되여야 합니다.…

래일 저녁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이 있으니 동무들도 공연을 꼭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시간과 새해를 맞는 첫 시간을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어린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일 크게, 궁전맛이 나게,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알려지도록…

학생소년궁전의 규모와 형태는 물론 창작품의 종자까지 심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지구를 통채로 들었다놓을 크나큰 담력과 이 세상 그 어느 건축가도 따를수 없는 예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있다는 긍지가 차고넘쳐 림의건의 가슴은 터질듯싶었다.

(학생소년궁전!)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미처 받들어드리지 못한 죄송함이 시간이 감에 따라 가슴속에 깊이깊이 파고들어 림의건은 좀처럼 창문가를 떠나지 못했다.

× ×

오늘따라 해빛은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린다.

림의건은 티 한점 오를세라 정성담아 마련한 형성도안을 펼쳐놓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는 자기의 창작품에 《품》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그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품》은 태여나지 못했을것이다. 그밤 아이들의 설맞이공연장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이 아니였다면 그는 아직도 여섯달전의 시간속에서 몸부림치고있었을것이며 창작가로서의 조락기에 들어섰을것이다.

설맞이공연장에서 림의건은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가 이 세상 끝까지 울려간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었다.

폭풍같은 환성, 환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설맞이공연장으로 들어서시자 그 넓은 장내를 뒤흔들며 터져오르는 기쁨의 환호성!

어린이들은 꽃물결을 이루며 수령님의 품에 남먼저 안기려 하였고 어른들도 발을 동동 구른다.

아, 무엇인들 없었으랴.

우주공간의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뜨겁고 그처럼 밝고 부드러운것이 그 위대한 품에 다 안겼다. 아니, 우주공간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듯싶었다.

… …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

림의건은 벌써부터 저 노래소리를 귀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듣고있었다. 눈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보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 바로 이것이였구나.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있고 우리 시대가 있다. 위대한 주체시대가!)

림의건의 가슴은 창작적흥분으로 세차게 들뛰였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창작의 나래가 활짝 펴이였다.

온 우주를 감싸안을듯 량쪽으로 팔을 활짝 펼친 반원형의 건물, 수직선을 강조하면서 전면유리로 장식되여 시원하면서도 률동감이 느껴지게 한 건물정면, 끝간데 없이 펼쳐질 창창한 미래를 느끼게 될 드넓은 마당과 춤추는 분수.

림의건은 많은 설계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자기의 창작품에 대하여 애착감을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이때 밖에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리더니 이어 넓은 방안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자 방안은 더 한층 밝아지는듯 했다. 이제는 벽과 천정만이 아니라 림의건과 모든 설계가들의 몸에서도 빛이 발산되는듯 했다.

가장 밝은 빛속에 서면 어떤 물체든 빛을 가지는것인지도 모른다. 달이나 행성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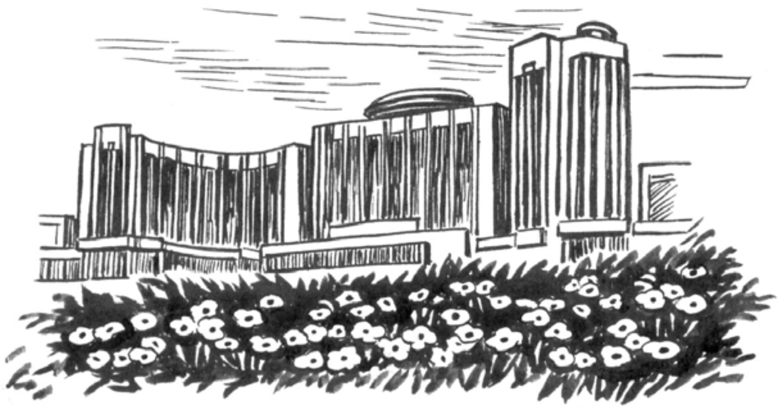
《무게가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품〉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림선생이 수고했습니다.》

《！》

림의건은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저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이 형성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저는 다만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선을 그었을뿐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설계에 눈길을 주시였다.



《유리를 많이 넣어 시원하게 한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에 맞을것입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시고 묻는듯 한 시선으로 림의건의 얼굴을 쳐다보시였다.

림의건은 부지중 긴장해졌다.

무슨 결함이 있을가. 건물의 량쪽팔이 너무 길게 처리된것이나 아닐가. 지붕처리？ 아니면 계단…

《유리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형성안의 한 부분을 친히 가리키시였다.

《난방은 어떻게 보장하려고 합니까? 여름에는 일없겠지만 겨울에는 추울수 있습니다. 궁전에서는 련습할 때나 공연할 때에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합니다.》

《…》

림의건은 자책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왜 이런 생각을 못했던가.

집의 크기와 모양만 생각했을뿐 그 집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누려갈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다. 집이란 겉을 보기 위한것이 아니라 살며 리용하기 위한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가장 중요한것, 이 집의 특수한 주인들에 대하여 망각한것이였다.

《형식이 〈품〉이라면 내용도 응당 〈품〉이 되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전면을 가창문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시원하고 안에서는 온도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추운 겨울 유리에 물방울이 생기는것도 방지할수 있고 여름이면 지나치게 더워지는 일도 없을것입니다.》

《！》

겨울에는 춥지 않게, 여름에는 덥지 않게！

림의건은 미소를 짓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다시금 우러러보았다.

아, 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면 그것이 무슨 품이랴.

친어버이의 품, 언제 달려가도 따뜻이 안아줄 이 품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부르고있음을 알기에 아이들은 설맞이공연에서도 그토록 환성을 올리는것이며 비내리는 밤에 흙감탕속에서 일하면서도 건설자들은 그냥 웃고 노래부를수 있는것이다. 아, 그 품, 그런데 자기는 걸보기에나 좋을 집을 만들어놓고 《품》이라는 이름을 붙인것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형식만으로 이루어졌던 《품》을 내용적으로도 충만된 《품》이 되게 하여주시는것이 아닌가.

림의건은 이 세상에 대고 당장 목청껏 소리치고싶었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리는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넓은 품이 너희들을 지켜주고있구나.

인민이여, 그대는 수령복이 있다!

림의건의 눈앞에는 이 시각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형성안이였지만 벌써 궁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무럭무럭 자라는 왕들의 모습이 보이는것이였다.

태양은 기울줄 모르며 빛과 열을 아낌없이 이 대지에 쏟아붓고있었다.

(한웅빈)

〔속 담〕

○ 젊어서 고생은 금 주고도 못 산다.
젊어서 곤난을 이겨내며 쌓고 키워온 경험과 의지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하다는 말.

○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친다.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옳은 비판이나 충고를 접수하는것이 자기에게 리롭다는 말.

국어(중학교 제3학년용)

4판

집 필 조덕숙, 교수 박사 문재홍,
부교수 리광섭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공훈기자 김승도

콤퓨터편성 손수옥

장 정 류명심

교 정 리분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3판 발행 주체91(2002)년 1월 17일

4판 인쇄 주체101(2012)년 3월 5일

4판 발행 주체101(2012)년 3월 15일

교-11-보-316

값 10원